

발전기금 기부잇달아 1월말까지 총 485억원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 동국학원 오복원 이사장이 지난 5일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1천 100만원을, 지난달 30일에는 본교 감사인 전등사 주지 항적스님이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조선내화(대표=이화일)에서 1억원을, 동강무역(대표=이창규)은 5천만원을 약정해 우선 2천500만원을 각각 본교에 전달했다. 그밖에 주식회사 해커스랩(대표=이정남, 박형진)에서도 주식 1천주(시가 1억4천만원 상당)를 발전기금으로 기증했다.

중의약대학 총장 방문 협약사안 구체적 논의

북경중의약대학 임세은 총장이 오는 21일부터 3일간 본교를 방문한다. 북경중의약대학은 △의료산업 분야 교류협력 △학술회의 개최 △의료·사이버 내외·산업분야의 교류협력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임세은 총장은 송석구 총장을 만나 지난 9월 협의회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신춘문예 동문 2명 당선 미당 기념관 설립 예정

2001년 동아·경향 신춘문예에 본교 동문 2명이 당선됐다. 김지혜(국문 00졸) 동문은 '이층에서 본 거리'라는 시로 동아 일보에, 김혜련(국교 91졸) 동문은 경향신문 평론부문에 '90년대 소설의 정체성과 반항의 포즈'라는 글로 각각 당선됐다. 한편, 본교는 지난해 12월 작고한 미당 서정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완공 예정인 제2도서관에 미당기념관을 세울 예정이다.

본교 교수 6명 정년퇴임 오는 23일 공로패 수여

2000학년도 정년퇴임식이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총장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퇴임교수는 서울캠의 △리영자(불교학) △오국근(영문학) △황창규(경영학) △박교수(산림자원학) △이문보(건축공학) 교수와 경주캠의 △김두희(의학) 교수이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8명의 퇴임교수에게 공로패가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10면(특집)

2000학년도 학위수여식 오늘(16일) 개최

서울캠, 오늘(16일) 중강당... 경주캠, 19일 문무관

2000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늘(16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자는 박사 77명, 석사 475명, 학사 2천 551명으로 총 3천103명이다.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뇌성마비 1급 장애자 박성준(문창4)군이 총장특별표창을 받는다. 박성준 군은 지난 97년부터 자기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 학생들을 가르쳐 지난해 5월 나라사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사전체 수석은 145학점을 이

수하고 평점평균 4.37을 받은 임성상(반도체과학4)군이, 전체 차석은 4.33을 받은 김연옥(사4)양이 차지했다. 각 단과대별 수석졸업자는 △불교대=이기홍(불교, 4.17) △문과대=이교은(일본, 4.04) △이과대=박성균(물리, 3.97) △법과대=문서연(법, 4.07) △사회과학대=이법진(정치, 4.14) △경영대=김동혁(회계, 4.17) △생명자원과학대=노유선(응용생물, 4.23) △공과대=김병대(전자공, 4.27) △정보산업대=강자영(컴공, 4.27) △사범대=김성연(가교, 4.17) △예술대=이재연(서양화, 4.03) △아간강좌=신금주(신방, 4.23) 등이다. 한편, 경주캠 2000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문무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학사 1천 768명, 석사 17명 등 총 1천 7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의학과 졸업생 54명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제 65회 의사국가시험 응시' 때문에 불참하게 됐다. 경주캠 전체수석은 177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4.24를 받은 의과대 이승우(의학)군이, 전체차석은 145학점을 취득하고 4.24를 받은 이선애(가교)양이 각각 차지했다. 올해 전체수석을 차지한 이승우군은 "수석 통보를 받고 나서 매우 기뻐했고, 재학 중 많은 선생님을 써 주신 부모님과 지도 교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 본과학년 기간 중 의학 분업 개정을 위해 마련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책국원으로 일한 것이 가장 기



졸업은 또다른 시작이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작에 가슴 설레고 있다.

역에 남는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각 단과대 수석 졸업자를 살펴보면 △불문대=권용희(불동, 4.19) △인문대=김경희(사북, 4.06) △자연대=홍성희(생화학, 4.17) △법정대=장연순(행정, 4.19) △상경대=권유정(회계, 3.99) △관광대=이장현(호경, 4.14) △한의대=김민현(한의학, 4.11) △의과대=김승태(의학, 4.21) △아간강좌=박덕찬(컴퓨터, 4.04) 등으로 전체적인 평점이 예년에 비해 낮아졌다.

신입생 O.T. 오는 21일부터 3일간 소그룹별 교수와 학생 대화의 시간 마련

200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1일부터 3일간 열린다. 첫날 장충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교과배우기와 불교합창단 공연 △사시·행시 동시 합격자 권준율(법·01졸)군 강연 △소설가 조정래 석좌교수 강연 △몽골구름·백상음원단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세미나실을 비롯한 강의실에서 모의토의 시험이 치러진다. 단과대학별로 진행되는 둘째날은 오전 9시부터 단과대 오리엔테이션과 수강신청 예비교육이, 오후 2시부터 학부·과, 계열·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단과대 오리엔테이션에 각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과 신입생들이 소수의 학생과 교수가 한 그룹으로 편성돼 대화를 나누는 '소그룹별 대화의 시간'이 마련된다. ▶(표)참조

| 단과대 | 장소 |
|------|------------|
| 불교대 | 문화관 K308 |
| 문과대 | 동국관 L501 |
| 이과대 | 상록원 3층 |
| 법과대 | 동국관 L101 |
| 사과대 | 문화관 예술극장 |
| 경영대 | 동국관 L401 |
| 생자대 |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 공과대 | 본관 중강당 |
| 정산대 | 도서관 제2열람실 |
| 사범대 | 학림관 소강당 |
| 예술대 | 문화관 세미나실1 |
| 아간강좌 | 문화관 예술극장 |

양캠프 간 학점교류 실시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서울·경주 캠퍼스 간 학점교류제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실시된다. 경주캠퍼스 학생지원을 늘리고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행되는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기준인원의 10%를 선발해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3학년 이상 △학구장에서 수강신청은 23일 오후 6시부터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수강신청은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컴퓨터실습실에서 진행된다.

새터, 총학 단독으로 강행 예정 양측 입장차이로 협의 무산... 학교측, 새터 공식불허

2001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개최여부를 두고 지난 2일 열린 총학생회와 학교 당국의 협의가 무산되면서, 올해 새터는 총학생회 단독으로 치르게 됐다.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충남 아산 도고온천에서 새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2면(문화)

그러나 학교당국은 지난 5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이번 새터를 공식적으로 불허함을 통보하고 진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초부터 가져온 새터 논의에서 총학생회는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근교에서 2박 3일간 진행하며 △안전을 위해 최신형 버스로 이동할 것 등을 학교당국에 제안했으나, 학교당국은 △화외에서 행사를 하는 것 △합숙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여사를 나타냈다. 그대신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하루 동안 장충체육관에서 진행할 것을

제외했다. 학생복지실의 이창학 과장은 "새터사안이 발생한 지 1년밖에 안된 지금은 학생과 학교 모두 지속해야 할 기간"이라며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과장은 "학교는 학부모와 언론등 대외적으로 받게될 비판적인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충체육관에서 도 총분히 새터를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원진욱(사4) 사무국장은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며 새내기와 재학생이 하나가 되는 새터의 의미를 감안한다면 새터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며 새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터사고 부상학생들이 각 동아리에서 올해 새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학생 대부분이 새터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새터에서 차량 전복사고를 당한 전북대는 사고를 당한 사회과학대를 제외하고 단과대 별로 새터를 다녀

올 계획이다. 전북대 유경식 부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전북 근교로 가길 권유한 것 이외에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며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면 무사히 새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도 새터는 총학생회 단독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새터참가비가 신입생 등록금고지서에 첨부되지 않았으며,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각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단과대별로 새터 참가비를 오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새터는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행사이므로 참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99년 이후 제작된 차량을 선택하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중 기자 dizzo20@dongguk.edu

지면안내

- 나홀로 시위 4면
SOFA완전개정을 위한 미대사관 앞 릴레이 '인시위'. 이색적인 시위 방법을 채택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학위수여자 명단 6~9, 11면
- 퇴임교수 인터뷰 10면
- 새터, 처음 접하는 대학문화 12면

보리수

동전 열개의 지혜

우리는 인연에 의해 만나고 인연을 만들어 살아간다. 시간과 장소, 더불어 함께 하는 이들의 연에 따라 각 존재는 다른 모습이 되고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 화염조사들은 그러한 인연 법을 동전 열 개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동전 열 개의 비유란 일 전 짜리 동전 열 개를 일렬로 나열해 순서대로 헤아려 보는 비유이다. 그때 동전들은 크게 세 가지 입장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우선 첫째 물체 내지 열체 등 놓여진 자리에 따라 제1전 제2전 내지 제10전이 된다. 그래서 차례로 제1전은 1전이고 제2전은 2전이며 제10전은 10전이다. 여기서 1전은 분수로서 1전이 며 연가된 1전이다. 따라서 2전은 1전이 없으면 2전이 아니다. 10전도 1전이 없으면 10전이 안된다. 그러므로 2전은 1전 중의 2전이며 10전은 1전 중의 10전이 된다. 그런데 열 개 모두는 여전히 각각 일전의 동전이다. 다시 10전에서 1전으로 거꾸로 헤아려 내려 오면 제1전은 10전이 되고 제10전이 1전이 된다. 역시 10전이 없으면 1전이 1전이 아니다. 그러므로 1전은 10전 중의 1전이 된다. 이처럼 1전은 여전히 1전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1전은 10전 중의 1전일 뿐이고, 때에 따라서는 10전의 힘을 다 갖는 1전이 된다. 이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졸업생이 되고, 학위를 받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사회인이 될 것이다. 졸업식이 끝나면 학생 개개인의 본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이나 자리가 변하고 역할이 바뀌게 된다. 대학을 떠나는 자나 남는 자 모두 인연법을 깊이 깨달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힘을 미루어주고, 또 모든 이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어 마지않는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 기획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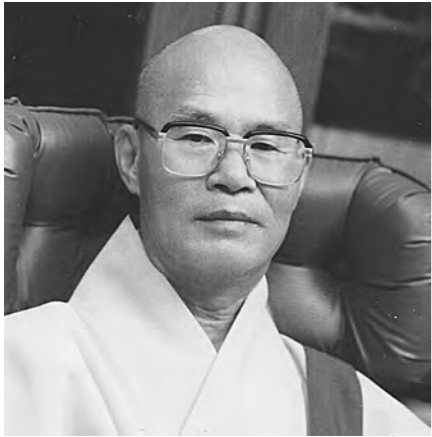
젊음의 패기로 가득찬 동양 푸른 산 정기로 누리의 어둠 밝히는 진리의 동산은 여러분의 또 다른 시작과 함께 할 것입니다.

동대신문사

치사

200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식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들은 드높은 학문에의 이상과 이상적인 인격 도야를 위해...

창조적 생의 주인공 희망의 빛을 주는 동국인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그리고 종교적 배타주의와 신제국주의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의 길을 배워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말씀하시기를 '전쟁에서 수천의 적과 단신으로 싸워 이기기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승리자'라고 설하시었습니다.



오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학문적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동국기상 발휘하는 사회의 청량인이 되길

은 우선은 보다 쉬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곤경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배운 용맹정진(勇猛精進)의 정신,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국에서 절자탁마(切琢磨)한 그 정신으로 앞으로의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로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

친일 예술가 '생애' 따로 '업적' 따로



△예술과 사회는 분리할 수 없다. △문제는 업적만 기억하거나 생애만 기억하는 것이다.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상도 주고 밭도 주자. △예술가도 민족 성원 한 사람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했다면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아주 특별한 날

요즘 팬시점을 가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분주하고 화려하다. 천장에는 색색의 화려한 바구니가 즐비해 걸려있고 한가운데에는 현란하게 포장된 갖가지 모양의 초콜릿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주현 (이과대1)

학교 선수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나는 동국대 축구팀의 열렬한 팬 중 한명이다. 하지만 여러 경기에 응원을 하러 다녀봐도 동국대의 응원은 썰렁하기만 하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한사람이라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 난다.

한정환 (문과대 국어국문3)

두려움에 대한 영화 한편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영화 '캐스트 어웨이'는 사람들의 보편적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영화에 따르면 사람의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사람'이다.

연기로 이러한 두려움의 대비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관객들이 이 영화를 지루하고 진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화 역시 그 이전의 '표류 영화'와 마찬가지로 논쟁의 위험이 있는 성육과 그 고종의 해결에 대한 언급을 교묘히 피해나갔다는 것이다.

김국형 (공과대1)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석무야, 현재야 졸업을 축하한다. 더불어 입대도 축하한다. 하하~ -복학생 형 △영훈이 형, 한상이 형, 지성, 효정, 동규, 순주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작업본색 △영성 형, 동준 형, 상봉 형, 산덕 형, 영훈 형, 주환 형, 혜혁~전자 4학년 졸업 다 축하해요~ -영도가 △스택! 7년만에 졸업 축하하네 △익주 오빠, 철이 오빠, 은정 언니 졸업 축하해요~ 익주오빠! 이제 밥은 누구한테 얻어먹죠? T.T -국문00미녀단 △영희배우 노병찬 오빠와 유부녀 진경 언니의 졸업을 축하드려요!! -숙 △준율이 형! 졸업 축하해요. 좋은 법조인이 됐을 거예요. -빈 △영진이 형! 사회인 되신 거 축하합니다. 회사연수 힘들져?? 돈 많이 벌거? 맛있

는 거 사주세여~ -태영 △정식이 형, 진이 형, 영실이 형, 졸업을 정말로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4th △동국문학회 이번엔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좋은 일 많기를... -후배들이 △민중미학연구회 94학번 박영진, 정광진 형의 졸업 축하합니다. -민미.연. 후배들 △현여울 졸업하시는 18기, 20기, 21기 선배님들 졸업 축하합니다! △AD.RUSH(광고동아리)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모두 축하드려요! 취직 꼭 하세요! -우지니 △동성, 병남, 인구 자랑스런 93의 졸업을 축하한다. -동악 93일동 △민중사랑 하우성 김부섭 임경란 졸업 축하해요. -태지 매니아 △손짓 사랑회 졸업생 여러분! 엄청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길 빌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동국대 공대 정산대 품물패 '한소리' 장!! △탈 사람들 대보름 맞이 굿 정말 신명

나게 잘 하셨습니다 탈! 파이팅! 열심히 합니다 △2001년 새터 성사! 새내기들은 새터를 갈 권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시장 △새터서고 해결도임 여러분 힘내세요 -동국문학회 △현여울 합주단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해요~ 온방글 축하합니다 △미진야, 너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멋진 사회인이 되는구나. 그 래두 취업 때문에 맘이 너무 무겁겠다. 그렇다구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이 다 잘 될거야. 축하한다. △희정영 그러구 해결형 울헤 졸업하는 거 정말로 정말로 축하드려요. 앞으로 하

고자 하시는 일 다 이루시구요, 멋진 사회인 되세요~!! -41.2th △택수형, 졸업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업 △찬형, 강훈형, 병우형, 주연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 △친구야! 이번엔 졸업하지? 정말로 축하한다. 일자리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마. 잘 될거야 화이팅!! -널 사랑하는 친구 △미선야~ 홈페이지 개장한 거 축하해. 나도 꼭 들게. △현철야~ 너무 졸업시켜주는구나~. 우 하하!! 무진장하게 축하해~ -moon 수고하셨습니다 △애들야, 방학이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말 수고가 많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힘내자. 그리고 사랑해 모두들!!!. 열심히 합니다 △이제 개강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구나.

새 학기가 되면 정말 열심히 하는 내가 될게. △이양!! 영어학원 다니니까? 실력은 좀 늘었겠지? 나 대신 영어회화 수업 좀 들어 줘~ △달랑야! 키토산 먹는다며? 효과는 있니? 열심히 먹고 살 꼭~ 빼길 바란다. △명희야, 코스프레 준비 잘하고 있니? 저번처럼 허당하게 하지말고 좀 열심히 해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도와줄 거 있음 말해~ 그리고... △소리아... 휴학하지마~ 너 없으면 누구 얼굴 보고 학교 다니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은지야! 방학 끝나기 전에 학교에서 람 보자! -K △민영야~근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거 힘들지? 확 고무신 거꾸로 신어라. △주현야! 방학인데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이 방학이 지나가기 전에 화끈하게 놀아보자. 너의 친구 s가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니우누리 ID: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졸업학점 인터넷 확인가능

2001학년도 2학기부터 본교 홈페이지 상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는 3월부터 취득해야 할 과목과 이수해야 할 학점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학점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2001학년도 2학기 실시를 목표로 개발한다.
또한 홈페이지 여론광장 Q&A란에 학사안내, 강좌선택, 졸업가능여부 등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항목별로 분류해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시설했다.

교내 무선 인터넷망 설치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는 3월중 교내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한다.
이로써 실내를 제외한 학내 어느 곳에서나 무선 LAN 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실내의 경우 상층원이나 휴게실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실 무료 개방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문학)은 이번 학기부터 멀티미디어실을 무료로 개방한다. 그동안 자료 이용료 3천원을 내고 학생증에 바코드를 부착해야 이용할 수 있었던 멀티미디어실이 학생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학생복지 차원에서 이용료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학기 멀티미디어실 이용료를 낸 학생들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에서 천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생협 3차 대의원 총회 개최

지난 12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생협 3차 대의원 총회가 개최됐다. 대의원 정인 67명 중 46명이 참석해 성사된 이번 총회는 △생협 이사장과 전 이사 사퇴 △생협독립법인 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생협 이사 직무·권한 대행 △생협독립법인 준비위원장의 생협 이사장 권한 대행에 대한 인준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생협독립법인 추진위원회 해체 후 이달 초 결성된 생협독립법인 준비위원회는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 김경대 노조위원장, 김덕기(경영3) 부총학생회장 등 모두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지유(물리학) 부총장이 선출됐다.

2001학년도 1학기 등록금 5% 인상 고지

학교, 인건비·물가상승 등 인상 불가피... 학생회, 일방적인 인상조치 반대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학교 당국의 등록금 협의가 지난 13일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어 학교측은 5%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들에게 발부함에 따라 올해 역시 학교와 학생회간에 등록금 문제로 진통이 예상된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측에 등록금을 협의해 책정하고자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예·결산 미확정을 이유로 협의를 미뤘고, 지난 8일 학교측은 학생회에 "등록금 인상 설명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회는 '협의'가 아닌 '설명회'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학교측에 알렸고, 양측은 이후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해 왔다. 지난 13일에는 기획인사처장실에서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와 김덕기(경영3) 부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대표가 만나 등록금 책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측은 △교직원 인건비 5% 인상 △물가 3% 상승 △교육기자재 매입비 확충 △학비감면 확대와 실험실습비 증액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용길 기획인사처장은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본교의 사정은 훨씬 나은 편"이라고 말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인상 방침에 반대했다. 총학생회 임은희(수교4) 학원자주화 투쟁위원장은 "학교에서 제공한 2001년 예산안을 비롯한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업예산은 줄었고 지출예산은 늘려 편성했으며,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2000년도 가결산 등 미확된 자료를 공개해 인상 이유를 더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은희 위원장은 "등록금 문제가 학내 중요한 사안만큼 학생들 등록금 책정 논의과정에 참여해 학교발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호 예산담당장은 "불확실한 수입은 줄여잡고 지출은 늘려 잡는 것이 회계원칙이며, 국고보조나 발전기금 등 줄여 잡은 수입이 늘어날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고 답했다.
등록금 고지서 발부에 대해 김덕기 부총학생회장은 "인상된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4일 고지서를 발부하려면 동결된 금액을 예납 형식으로 고지하라"고 주장했다. 선상지출예산은 늘려 편성했으며, 학교



지난 13일 기획인사처장실에서 등록금 협의가 진행됐다.

금을 받는 학생 부모는 등록금 고지서 발부가 늦다는 항의전화가 많다"며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등록금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학생회가 주도하는 '등록금 남부 연거푸 투쟁'이나 학생회 구좌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민주납부' 등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덕기 부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서명운동을 벌여 우선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2002학년도 입시안 발표

특차모집 폐지·정시 세 군 분할 모집

2002학년도 본교 입학 전형안이 발표됐다. 이번 입시부터는 '나' 군에서만 시행해온 정시모집을 '가', '나', '다' 세 군으로 분할해 실시한다.
각각 전체 모집인원의 11.3%와 20.3%의 인원을 뽑는 '가', '나' 군 모집은 수능성적만 반영되며, '나' 군 모집은 △인문계열 내신 40%, 수능 55%, 논술 3%, 면접 2% △자연계열은 내신 40%, 수능 57%, 면접 3% △예체능계열 내신 30%, 수능 40%, 실기고사 30%의 비율로 전체 모집인원의 44%를 선발한다.

또한 특차모집이 폐지되고 수시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24.4%로 대폭 늘어났다.
9월에 실시하는 1차 수시모집은 장기취업자, 불교계 추천자, 재외국민 대상자 등 9명만을 내신과 면접을 각각 50% 반영하여 뽑는다.
11월에 실시하는 2차 수시모집은 내신 90%와 면접 10%의 비율로 학교장과 담임교사 추천, 수학 과학 교과성적 우수자와 외국어 우수자 등 626명을 선발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실장=이종석)의 한 관계자는 "여러 모집

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1학년도 정시모집은 총 모집인원 1천602명에 8천80명여 지원해 5.0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차 등록을 마친 결과 86%의 등록률을 보였으며, 현재 추가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합격자의 최종 등록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고수동정

▲유지나(영화영상학)=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USC세미나에서 발표
▲강태원(물리학)=내일(17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학교를 방문해 공동연구협정서 교환
▲성용길(화학)=오늘(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cent Advances in Drug Delivery Systems에 참석
▲정재형(영화영상학)=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 참가



캠퍼스 # ... 헤화관 2층에 문을 연 인터넷 휴식공간 '캠퍼스 샵'. 컴퓨터 실습실보다 빠른 인터넷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한 여학생이 정보 검색에 열중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새터사고 1주기 추모제 진행

내일(17일) 오전 10시 대각전에서

새터사고 1주기 추모제가 내일(17일) 대각전, 학림관 소강당 등에서 진행된다.
대각전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추모제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유가족, 부상학생, 학생대표가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린다. 이어 오후 1시부터 학림관 소강당에서 추모의례와 추모공연, 부상학생들의 편지글 낭독 등이 진행되며, 총학생회·부상자·사망학생 부모 대표는 공동명의로 새터사고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학림관 앞 추모비로 자리를 옮겨 추모모집을 헌정한다.

"졸업하려면 영어는 필수"

2001년 신입생부터 영어패스제 도입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졸업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영어패스제에 따라 신입생들은 오는 21일 모의토익시험을 시작으로 학기당 1회씩 영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에서 실시하는 평가시험이나, 토플·토익·토픽 등 정기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단, 불교대와 영화영상전공을 제외한 예술대,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점수는 이전 신입생들의 모의토익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단과대학 또는 학교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외부 정기시험의 합격선은 △토플=505~533점 △토익=600~680점 △토픽=483~575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with 5 columns: Year, Month, Day, Academic Schedule, Remarks. It details the 2001 academic calendar with specific dates for classes, exams, and holidays.

Table with 5 columns: Year, Month, Day, Academic Content, Remarks. It details the 2001 academic content, including registration, exams, and graduation requirements.

Section titled '금융기관 학자금 용자 신청' (Financial Institution Student Loan Application). It lists application procedures, eligibility criteria, and provides a table of interest rates for different loan terms.

학생복지실

부시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논단**

독자적 논리로 대북정책 임해야

지난해 말 미국 올브라이트장관과 북한 조명택차수의 상호방문이 이뤄지고 북미간에 공동공표문제가 발표되면서 양국관계가 급진전되리라는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북미간의 핵심협약이며 '페리프로세스'의 열쇠가 되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협상타결이 임박했다는 징후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협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부시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클린턴 남북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미사일협상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측도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의 한 분석가는, 미국이 장거리미사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한을 사거리에 두는 중거리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 동결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미사일협상이 막판에 좌초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면 향후 협상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클린턴 정부조차 협상 도중에 발을 빼버린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부시 정부는 더욱 완강한 태도를 취할게 분명하며, 미사일협상의 중단은 다른 모든 대화의 중단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정부의 대북정책방향

게다가 미국의 공화당계 분석가들은 부시정부의 접근방식이 '거대하고 싶다면 대화하자, 아니면 여기 내 전화번호가 있다'는 식이 될 것이며, 1994년의 제네바합의도 재검토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페리보고서의 기본논리는 "제네바합의는 북한 핵 동결을 위한 중요한 합의로서 북한이 먼저 위반조치를 행하기 전에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북한이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사안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제네바합의 자체를 변경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전력의 감축 요구를 제네바합의 이행과 연계하는 전략이 되거나, 제네바합의는 존중하되, 그의 추가적인 협상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선결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북한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만약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도발행위'를 할 경우 군사적 응징조치를 취한다는 '무시' 전략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부시정부의 이러한 접근방식이 실행된다면, 대

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지난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김대중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한미일 정책조정그룹이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의 진척 여부와 무관하게 한미간의 군사동맹관계에는 결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과의 정책공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미국의 NMD/TMD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북한의 일본에 대한 과거청산 및 식민지배 보상 요구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이산가족상봉, 경제협력사업) 획득에만 치중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정책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햇볕정책의 자기모순

그리고 이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자신의 독자적인 논리와 정책적 목표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한 반도정책에 종속된 형태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햇볕정책이 미국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고유한 정책적 유인이 없다는 점(특히 전통적으로 북한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제에 예컨대 주한미군 및 평화협정 관련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로 상징되는 바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내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김대중정부가 통일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국가연합'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은 햇볕정책의 자기모순이 드러나는 기로인 셈이다.

2001학년도 AA제 도입

진로결정, 더 이상 헤매지 말자!

전문적인 상담 ... 본교 실정에 맞는 방안 모색

지난해 경영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00학번 새내기들은 경영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운데 '소그룹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별로 배정된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기도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 모든 신입생들이 '담임선생님 같은 교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본교는 200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AA(Academic Advisor, 학업지도 전담교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명과 현직 교수 4명으로 구성될 AA는 경찰행정이나 사범대와 같이 전공이 결정된 학생을 제외하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이학계열에 배정된다. 이들은 △수강신청 등 학습계획 설계 △전공선택 △취업 유학 등 진로지도 △휴·복학 신청, 장학금 신청을 포함한 민원지도 등의 일을 맡는다.

교육개혁추진단의 이견(사회화) 교수는 "AA는 전공결정과 수강신청에서 혼란을 겪는 신입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AA제를 실시한 연세대

는 상담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연세대 1학년 재학생의 약 80%가 한학기 동안 1회 이상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문원구 학업지도교수는 "AA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방치해 왔던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도와 진공선택지도를 대학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AA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학기 한 두번 정도의 상담으로 학생들이 진로나 전공결정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을 지는 의문이다. 연세대 권정은(사회계열 1)양은 "일반적인 학사일정이나 제도 상담은 무리가 없는 듯 하나 개인의 처지나 실정에 맞는 도움을 받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연세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AA제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AA를 현 15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연세대의 선례를 통해 AA제의 실효성을 인정한 본교를 비롯한 성균관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에서도 2001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성균관대의 경우 전체 교수에게 1인당 10명의 학생들을 배정하고, 개인면담



과 그룹별 상담을 학기당 2회 의무적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수강신청이나 전공결정 시기 등 학생들이 상담에 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이버상담'이라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교 역시 학생들이 물리는 현상을 대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AA제는 학생

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적극적인 형태의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학생들이 느꼈던 교수들과의 거리감을 좁혀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AA제를 도입·시행하면서 타대학 사례를 쫓아가기 보다 본교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여 질 높은 상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사설

국회의원 한 포 행사의 의미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의원 21명 가운데, 보안법 개정에 '개'지만 들어도 아연실색했던 한나라당 소속의원 4명이 포함돼 있던 것은 놀랄 만한 일이었다. 보안법 개폐 논의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논의의 자체가 철저하게 외면당하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보안법 개폐 문제는 한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해오만 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야당 눈치보는데 정신 없어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듯대 없고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보안법은 폐지도 개정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당론이다"와 같이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담판에 대한 '선물'이라든가 담판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등 보안법 개정의 본질을 왜곡시켜왔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야의 개혁적인 소장파 의원들이 예상외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복잡하게 얽힌 '보안법'이라는 실타래가 풀릴 조짐이다. 이들은 보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결정을 맡기는 '크로스보팅(자유투표)' 방법체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있는 한 사람의 발언이 당론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생현안, 인권침해, 부패방지 등 정작 중요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단지 이러한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단지 결기식의 경우가 허다했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국민 앞에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그들이 행사한 한 표는 보안법으로 몇 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차가운 감옥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있는 양심수들,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의 소중한 한 표를 대신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식대인상 학생의견 고려해야

개강을 앞둔 지금,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의 식대 인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회관 식당업주들이 물가 상승과 적자누적을 이유로 식비 인상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식가격을 기존의 1천3백원에서 1천6백원으로 3백원 인상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40가지에 해당하는 일품메뉴를 선보인다는 것이다.

2년전 식당업주는 학교측과의 식당 입찰과정에서 조리실명제 및 자료공개, 메뉴의 다양화, 이익금이 2%를 넘을 시 이윤잔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것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리실명제나 자료를 공개한 것을 보지 못했으며, 매주 순서만 바뀌는 메뉴의 음식을 접했다. 또한 종류가 한정된 밑반찬과 이를과는 맞지 않는 음식을 올려 겨자먹기로 이용했으며, 적자라고 주장하는 탓에 식당측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이 아닌 식대의 가격인상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업주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식단의 질 향상을 무시해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업주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처음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들과 약속한 질적인 향상 약속 또한 지키지 못했다. 또한 학교·업주·학생회측 3자가 만나 논의한 자리에서 식당업주측은 이번 한학기 동안만 동결하고 2학기 때 다시 식대 인상을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해마다 식당업주와 실랑이를 벌여왔다. 무엇보다 음식의 질에 비해 높은 가격정책이 원인일겠지만 더 큰 문제는 3자간 합의·믿음의 부족이다. 식당 업주측은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생측과 학교측은 현재 처한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 | | | |
|----------|-----|-----------------|-------------------------------|
| 발행인 | 송석구 | 인터넷 동대신문 | http://dgupress.dongguk.ac.kr |
| 편집인 겸 주간 | 양영진 | 인터넷 동국대학교 | http://www.dongguk.edu |
| 부주간 | 백승석 | 하이텔 ID dgupress |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
| 편집국장 | 박상관 | 구독문의 :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
| 편집장 | 김진아 | | |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 명단



사진은 박사학위 수여자임

박사학위 (총77명)

철학 (6명)

- ▲김봉희=‘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보살지(菩薩地) 연구 △52년생 △경기도대 행정학과 졸 △98년~현재 경상대 교무처 교무과장
- ▲김영재=고려불화의 화엄사상성연구 △48년생 △본교 미술학과 졸
- ▲김진태=세친(世親) 유식(唯識)사상의 연원과 성립에 관한 연구 △54년생 △대입검정고시 합격
- ▲이승호=유식설(唯識說)과 밀교(密敎)의 실천원리 비교연구 △57년생 △본교 인도철학과 졸 △82년~현재 군중법사(중령)
- ▲이후덕=선진 유가의 인(仁)사상 연구 △65년생 △본교 철학 졸 △98년~현재 본교 강사
- ▲임승택=Patisambhidamagga(무애해도)의 수행관 연구-’틀숨.남숨에 관한 논의(Amapanakatha)’를 중심으로 △65년생 △본교 국민윤리학과 졸

문학 (8명)

- ▲김종건=The Scriptures의 어휘의미와 은

- 유 연구-The Gospel According To St.John을 중심으로 △62년생 △건국대 영문학과 졸 △현재 동우대 교수
- ▲김주용=일제의 대 간도 금융침략정책과 한인의 저항운동 연구-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67년생 △본교 사학과 졸 △97년~현재 본교 강사 △98년~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정보실
- ▲문안식=백제의 영역확장과 변방세력의 추이 △67년생 △조선대 인문과학대 졸
- ▲백낙천=국어 통합형 접속어미의 형태 분석과 의미 연구 △66년생 △본교 국어교육과 졸 △97년~현재 한림대 강사
- ▲변화환=The Syntax of Comparatives in English. △42년생 △본교 영어영문학과 졸 △95년~현재 신홍대 교무지원처장
- ▲이영희=관광지 라이프사이클 모형개발-수안보천천을 사례로 △64년생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졸 △97년~현재 본교 강사
- ▲장희정=조선 후기 불화(佛畵)의 화사(畵師) 연구 △68년생 △전남대 졸
- ▲한상길=조선 후기 사찰계 연구 △65년생 △본교 사학과 졸 △2000년~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불학연구소 연구원

교육학 (2명)

- ▲구만호=한국인의 직업선택 요인 연구 △54년생 △본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과정 수료△2000~현재 본교 강사
- ▲명지원=홀리스틱 교육에 의한 통합교육 과정 구성 △65년생 △삼육대 신학과 졸 △97년~현재 삼육대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

법학 (5명)

- ▲김기현=한국 교정의 사회화처우(社會化處遇)제도에 관한 연구 △58년생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졸 △97년~현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교수
- ▲김종구=형사사건처리절차의 현실과 개선방안-검찰운동을 중심으로 △41년생 △서울대 법과대 졸 △98년~현재 홍익대 초빙교수,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
- ▲김진혁=한국역대경찰조직의 구조에 관한 연구 △69년생 △본교 경찰행정학과 졸 △2000년~현재 본교·대구대 강사
- ▲박병국=경찰개혁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62년생 △경향대 행정학 졸 △2000년~현재 경찰청 총경
- ▲이규열=A COMPARATIVE ANALYSIS OF PROXY SOLICITATION IN THE USA AND KOREA-IMPLICATIONS FOR

REFORM OF KOREAN PROXY SOLICITATION △49년생 △상지대 졸

정치학 (1명)

- ▲김찬규=핵 확산금지 레짐에 관한 연구 △63년생 △본교 정치외교학과 졸

행정학 (2명)

- ▲이준호=지역정보화정책 집행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66년생 △본교 행정학과 졸
- ▲최기문=한국적 자치경찰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52년생 △영남대 경영학과 졸 △99년~현재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

경영학 (1명)

- ▲진용=기업의 환경성과와 경영성과 관계 분석 -한국의 ‘환경친화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51년생 △한양대 기계과 졸 △99년~현재 한세대 겸임교수

이학 (11명)

- ▲고영현=Effects of Nicotinamide Coenzymes on the Stability of Enzymes in Various Tissues of Niacin-Deficient Quail. △53년생 △서울대 과학교육과 졸 △98년~현재 서울특별시

- 성북교육청 장학사
- ▲권중균=생활형에 따른 거미류 시각기에 관한 미세구조적 비교 연구 △54년생 △신홍대 임상병리과 졸 △97년~현재 신홍대 임상병리과 겸임교수
- ▲김미영=Molecular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Novel Rh Complexes of Polypyridyl Ligands. △70년생 △본교 화학과 졸 △94년~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 ▲김은미=채집 분류된 버섯의 항균활성 검색과 삼색도장버섯의 생리활성 물질에 관한 연구 △69년생 △본교 화학과 졸
- ▲김희수=A Study on Optimal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Based on Different Interval Lengths. △70년생 △세종대 응용통계학과 졸 △2000년~현재 나사렛대 겸임교수
- ▲박재경=The effects of Telomerase gene expression on the escape from the M2 crisis in the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s. △55년생 △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과 졸
- ▲안상현=노화에 따른 세포성 면역반응과 Apoptosis 변화에 관한 면역조직학적 연구 △69년생 △본교 생물학과 졸 △97년~현재 본교 현의학과 외래강사
- ▲이애경=다항반응자료를 모델링에 필요한 새로운 변수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67년생 △본교 통계학과 졸 △97년~현재 본교 강사
- ▲임봉환=N형 GaN에 대한 전기 광학적

- 특성 연구 △62년생 △본교 물리학과 졸 △91년~현재 국방과학사연구소 총기·화재감식과 근무
- ▲조영덕=On the Coproducts in the Category of Ringed Spaces. △62년생 △본교 수학과 졸
- ▲한혜철=Synthesis of Ion Exchange Resins for Selective Chelation of Metal Ions and Their Applications. △55년생 △본교 화학과 졸 △91년~현재 서경대 화학과 교수

농학 (1명)

- ▲박진서=원지(遠地) 뿌리 추출물의 뇌허혈 보호효과와 성분분리에 관한 연구 △69년생 △경향대 농학과 졸

공학 (8명)

- ▲김상남=SF6-Ar 혼합기체에서의 전리(電離)와 부착계수(附着係數) △51년생 △승실대 전기공학과 졸 △78년~현재 인천전문대 전기과 교수
- ▲나상영=역할-기반 접근 제어 모델에서 위임을 통한 동적 역할 할당 △69년생 △본교 전자계산학과 졸 △98년~현재 남서울대 컴퓨터학과 조교수
- ▲나승규=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흐름제어 기법 △65년생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졸 △99년~현재 본

▲우회영=BEq와 MCS 기법을 이용한 혼합

▲이재국=건축물의 용도규제에 관한 연구

교 강사
▲우회영=BEq와 MCS 기법을 이용한 혼합 기체에서 전자의 수송계수(輸送係數)에 대한 시뮬레이션
△46년생 △광운 전자 공과 대학 △2000년~현재 대립대 전자정보통신 과 근무
▲윤동용=강상자형 교량 압축플랜지의 극 한강도 설계에 관한 연구
△70년생 △분교 토목공학과 졸 △99년~현재 정밀안전진단
▲윤문영=Burkholderia coovenanars SY-01 리파제를 이용한 항진균성 의약품 중간체의 광학분할에 관한 연구
△64년생 △분교 화학공학과 졸

▲이재국=건축물의 용도규제에 관한 연구
△61년생 △분교 공과대 졸 △2000년~현재 서일대 조교수
▲이점우=주택건설산업과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53년생 △성결대 경영학과 졸 △99년~현재 (주)정우공영 대표이사
▲이명희=신리적 기질 유형에 따른 창의

가정학 (3명)

▲김희라=케이빙TV 흡소풍을 통한 의류 구매자의 만족/불만족 및 불평행동연구
△68년생 △분교 가정교육학과 졸 △98년~현재 원주대 강사

▲이명희=신리적 기질 유형에 따른 창의

성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60년생 △분교 가정학과 졸
▲정주원=가계내 재산상속에 따른 가계재 무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와 기혼 자녀를 중심으로
△69년생 △분교 가정교육학과 졸 △99년~현재 계명대 생화학학원 교수 연구원

한의학 (21명)

▲강동휘=Effects of Honghwain-Jahage extracts on cytokines-induced production of nitric oxide synthases and nitric oxide in mouse calvarial osteoblasts
△경산대 한의학과 졸
▲강정준=보양환오탕(補陽還五湯)의 치매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70년생 △분교 학의학과 졸 △99년~현재 한서대 물리치료학과 전임강사
▲김경선=한의학의 정신과 불교 유식학 중 심미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64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2000년~현재 고양 한의원 원장
▲김성수=사일산전이효소 및 그 저해활성을 갖는 한약재에 관한 연구
△71년생 △동의대 한의학 졸 △98년~현재 와제 한의원 원장
▲김소형=전갈약침액(全蠲藥鍼液)이 항돌

연변이 및 알 예방활성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64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2000년~현재 한서대 한방병원 침구과 과장 근무 전임강사
▲김재준=Inhibitory effect of Silosongami on the platelet aggregation.
△68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99년~현재 청양 한의원 원장

▲김지형=대시호탕(大柴胡湯)이 중간대뇌 동맥결찰로 유발된 뇌허혈과 배양신경세포를 이용한 저산소증에 미치는 영향
△70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2000년~현재 분교 강남한방병원 내과전문수련의
▲박석기=삼초(三焦)의 장부(臟腑)계통 연구
△54년생 △분교 한의학 졸 △88년~현재 박석기 한의원 원장
▲박현준=귀비탕(歸脾湯) 및 그 구성약물군이 항산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61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96년~현재 처음 한방병원 원장
▲송순기=만성적 알코올취취 환취에 갈화(葛花)해정탕투여와 운동부하가 간조직내 CYP2E1 및 혈중 효소 발현에 미치는 영향
△69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서영준=The antioxidative effect and inhibition on amyloid-βsecretion of Bombusae concretio Salicea in neuronal cells.
△70년생

▲김대인=위암 및 위암의 전구 병변에서 p16INK4A 촉진자의 과배철화

▲김명환=관형북부관 중간수직보강재의 설계공식 제안을 위한 실험적 연구

▲김진우=HEC-FDA를 이용한 흡수피해역 산정과 민감도 분석

한 신호 모델링 및 Measurement-based 모델링에 관한 연구
△이호준=임피던스 정합을 이용한 능동 인버터 대역 통과 여과기에 관한 연구
△신재원=GaAs MMIC를 위한 PECVD 질화막의 응용에 관한 연구
△실동범=비 동심 링 구조 광대역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설계
△김현=깎지긴 결합구조와 슬롯이 있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대역통과필터의 설계
△배현철=BWLL용 MMIC 전력 증폭기의 설계 및 제작
△김민=파지 추론을 이용한 신경회로망 학습요소 조정에 대한 연구
△이재산=MPEG-4 Shape coding에 대한 적합성 연구
△유식용=종속 퍼지 제어 방식에 대한 연구
△박진국=nm과 PHEMT의 도핑층 설계에 따른 특성변화 연구
△김현태=주파수 변환에서의 객체 기반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과 HSI 컬러공간을 이용한 워터마킹 기법
△오정근=단일 단계 매칭 기법을 이용한 지문 인식 시스템의 성능 개선
△임명은=조정 에이전트를 이용한 개인화된 상품 추천 시스템의 개발
△이승태=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시스템
△최우정=리눅스 IEEE1394 OHCI 인터페이스를 위한 IP 멀티캐스트의 QoS확장
△김경선=MMI 인터리버를 이용한 W-CDMA 시스템에서 터보부호의 성능에 관한 연구
△김상일=양측 여자형 LDM의 동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호=순살매립지반의 표층안정처리를 위한 수평배수재의 공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태균=강상자형 수평곡선교량에서 발생하는 뒤틀림응력에 관한 연구
△류진현=연약지반 위에 시공된 자가치유(SSSH) 차수재의 투수 및 강도특성
△최혜진=건축물에 대한 각국의 설계용 풍 하중에 관한 비교 평가
△이정혜=원형강관 플랜지 이음에 관한 내력
△김민영=냉간성형 경도형강 압축부재의 웹-플랜지 폭비에 따른 내력
△김소정=홍조림한 유성 식품 중 비스페놀류의 분석
△천현주=대장균에서 Bacillus subtilis 168 extracellular lipase의 발현
△이선희=식품용 PVC 포장재에서 식품 유 사용매와 식품으로 이행되는 알킬페놀류의 분석
△김문수=과립 및 파라인 목본 복합재료의 압출공정에서 상변화 특성 연구
△한민용=Audio Coding Using Combined Multiresolution Sinusoidal and Wavelet Packet Analysis with SPIHT Bit Allocation.
△김성찬=MMIC를 위한 PHEMT 제작 및 고이득-광대역 MMIC Distributed Amplifier의 설계
△홍주연=ISM-Band Low Distortion MMIC Mixer의 설계 및 제작
△윤호석=개선된 워터셰드를 이용한 고속 반자동 객체 추적 알고리즘
△이복형=GaN 소자의 쇼트키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이승현=3점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경회로망의 혼합제어방식
△김민철=광 기록 저장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신호처리 시뮬레이터 구현
△이준영=SET를 개선한 신호카드 기반의 결제시스템
△전병철=0.2μm T-게이트를 이용한 밀리미터파용 PHEMT 제작에 관한 연구
△박덕수=Bias에 따른 Impedance특성을 이용

△분교 한의학 졸 △99년~현재 서영준 한의원 원장
▲서은경=A study on the anti-diabetic effect of Platycodon grandiflorum on the animal Models.
△62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2000년~현재 마산 생생 한의원 원장

▲서종은=복분자(覆盆子) 추출물이 흰쥐 음경해면체 조직의 Nitric oxide synthase 활성, Nitrite 함량 및 음경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서진우=Effects of Yukmi-jihwang-tang-Carthusus tinctorius L. extracts on IL-1β, TNF-α, INF-γ induced production of nitric oxide synthases and nitric oxide in mouse calvarial osteoblasts.
△68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99년~현재 창해 한의원 원장

▲오연환=청폐사간탕(淸肺散肝湯)이 중대 뇌동맥 폐쇄 후 재관류에 미치는 영향
△68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99년~현재 동수원 한방병원 재직
▲우대운=Identification of Serotonin N-acetyltransferase inhibitor from herbal medicine.
△67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2000년~현재 해인당 한의원 원장

▲우덕안=Effects of Yukmi-jihwang-tang-Jahage(YJ) extracts IL-1β,TNF-αand INF-γ induced production of nitric oxide synthases

▲김대인=위암 및 위암의 전구 병변에서 p16INK4A 촉진자의 과배철화

△분교 의대 졸
▲김동욱=폐결핵으로 인한 각혈 환자에서 기관지 동맥 색전술의 치료 효과와 재발

△박진우=HEC-FDA를 이용한 흡수피해역 산정과 민감도 분석
△김명환=관형북부관 중간수직보강재의 설계공식 제안을 위한 실험적 연구
△서보현=강구조 편심브레이스골조의 거동 특성

△심재현=건축법규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로스트립 안테나 설계
△신길재=전계 발광 소자용 고분자 초박막의 발광 특성에 관한 연구
△김양삼=Complexation법에 의하여 제조된 실리콘카타이타나이어 에어로젤의 물리적 특성

△송정민=전반이 라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이승범=적응형 PPF 재어를 이용한 지능구조물의 실시간 능동진동제어
△김현석=킬레이트 형성기를 도입한 다공성 정밀여과막에 의한 유해금속이온의 흡착특성

△장지용=비대칭 교환기에 관한 연구
△정수경=Multiprotocol Label Switching에서 Traffic Engineering과 load Balancing을 보장하는 LSP 설정
△조운희=다양한 트래픽 소스를 위한 멀티 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박종석=비선형 확률함수를 가지는 RED 알고리즘

△신광현=효과적인 군집수 찾기 방법을 이용한 웹 사용자의 군집 모형
△최정백=어의관계적 방법과 문맥구조적 방법을 통합한 문서요약
△김태균=CC-NUMA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싱 노드간 네트워크 부하 분석
△왕희성=서로 다른 응용분야에서의 메모리 특성 분석

△이용한=MPLS-TE를 이용한 LSP설정에 대한 연구
△한태근=실시간 렌더링을 위한 효율적인 Anti-Aliasing에 관한 연구
△백순욱=압축 영역에서의 효율적인 에지 맵 추출과 장면 전환 검출에의 응용
△박승준=VoIP에 대한 QoS 방안연구
△조재동=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힌트정보를 이용한 디스크 캐쉬 운영방안
△주혜운=시판 호상 요구르트에서 분리한 젖산균에 관한 연구

△김룡년=기독교 사회교육 평가-재림교회를 중심으로
△임갑준=버 건담작과 초기생육단계별 관수 지속시간에 따른 생육반응
△원명수=Remote Sensing의 다중분광영상과 DEM을 이용한 산림환경분석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윤길산 연습림을 중심으로
△이재혁=단옥수수(sugary) 자식계통의 적응성 및 조합능력검정
△양봉숙=Thermo-Accelerated aging 처리에 의한 종이의 노화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박지혜=Rosin-Ester emulsion size의 제조 및 사이지 효과에 관한 연구
△채정삼=최인훈 소설의 기호학적 분석 -단편소설 ‘웃음소리’, ‘열하일기’, ‘금오신화’를 중심으로마로
△김경미=조선 후기 사불산불화 화파의 연구
△황규성=조선시대 삼신불화에 관한 연구
△최원섭=‘이비탈마구사론’의 수행체계 연구 ‘인’ 개념을 중심으로

△임삼희=법장 화엄삼성설의 성립과정 연구
△심주완=17세기 전반기 대명소초불상 연구
△김재숙= ‘능가경’의 유심사상 연구
△장선덕=고려 충선왕의 유물정책에 대한 연구
△잔남수= ‘십이야(Twelfth Night)’의 광대, 페스테(Feste)의 인물 특성 연구
△곽진희= ‘중분별론’의 공사상에 관한 연구
△한은주= ‘동량 레퍼터리 극단’ 연구-1970

and nitric oxide in mouse calvarial osteoblasts.
△70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98년~현재 춘천 우덕안 한의원 원장
▲우호= ‘황태내경태소(黃帝內經太素)’와 ‘중광보주황태내경소문(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의 비교론적인 연구
△66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97년 우호 한의원 개원
▲유규름=Effects of Saenghyetang on Learning and Memory Performances in Mice.
△53년생 △경희대 한의학과 졸 △81년~현재 천도당 한의원 원장
▲조규선=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이 중간대뇌동맥 결찰로 유발된 뇌허혈 및 배양신경세포를 이용한 저산소증에 미치는 영향
△71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분교 분당 한방병원 전공의
▲홍문엽=Inhibitory effects of Hwaotang(HOT) on the atherosclerosis and the venous thrombosis.
△62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의학 (8명)

▲김대인=위암 및 위암의 전구 병변에서 p16INK4A 촉진자의 과배철화
△69년생 △분교 의대 졸
▲김동욱=폐결핵으로 인한 각혈 환자에서 기관지 동맥 색전술의 치료 효과와 재발

△신병성=초기불전의 수행차제 연구
△권예현= ‘단경’에 보이는 불성사상 연구
△김준희=한국 근대문단의 형성과 등단제도 연구
△강영철=조선후기 용주사 불화의 연구

△조성재=영화 ‘광Zone엔’ 제작에 관한 연구
△홍재미=도승의 기.감응설에 관한 연구
△김민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성인물 연구-여성인물의 형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문수희=신소설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근대의 이념-1900년대 이인직과 이혜조의 소설을 중심으로
△임진선=독일어 화법조동사의 양상
△김유신= ‘국화의 약’ 논

△이서린=다나자기꾼이치로론- ‘작은왕국’에 나타난 매저키즘을 중심으로
△차일경= ‘강조대비부사’를 이용한 표현의 일고찰
△이현지=유방선 한시 고찰-두시 수용을 중심으로
△김지은=신라 하대 경문왕의 왕권강화정책
△이경성=6~7세기 신라의 재구조와 왕권
△배혜린=한국 N세대 영상교육 현황과 열린 교실의 대안으로서의 영상교육-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워크숍 비교를 중심으로

△최은식=1990년대 후반 한국영화에 나타난 색수열리타와 젠더 이데올로기- ‘정사’, ‘해피엔드’, ‘집속’,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호연= ‘중간예블’의 학고 밖 문화-청소녀 수련시설 영상제작반 아이들에 대한문화기술자
△김진성=북한의 선군정치(선군정치) 연구
△박신자=경희의 선사상 연구
△김은혜=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지위-서울시를 사례로
△안필섭=요가 수트라에 수용된 초자연력의 의의
△윤성진=어미 ‘라’에 대한 연구
△성동일=집속어미 ‘건데’에 대한 연구
△박재희=조선후기 물가변동 연구-미,은가를 중심으로
△장희정=3세기 고구려왕의 평양이거와 왕권강화

△신용철=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연구-석탑의 편년와 팔부중상의 성립
△조수길=명의신학의 형식책임에 관한 연구
△안정호=한국의 동북아시아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문한성=복수노동조합체제하에서 단체교섭장구의 단일화 방안
△정원식=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조경재=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일본의 형사증거개시제도를 중심으로
△이준영=비즈니스 모델 특허(Business Model Patent)에 관한 연구-미국 특허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이찬영=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연구-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김태우=정당국가에서 국민대표에 관한 연구-한국헌법에서 전국구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을 중심으로
△조용철=수도권 개발지역의 범죄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윤=경찰정보관리체제의 운영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신민철=MANAGEMENT BUYOUTS과 경영진의 선임의무에 관한 연구-미국 회사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장세영=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김수경=한국 회사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회사법상 감사위원회를 중

관련요인
△61년생 △경북대 의학과 졸 △현재 울산 동강 병원 내과 과장

▲유선희=음접공의 식이 선호도와 혈 중연, 카드름 및 망간 농도와 신체 비만 지수와의 관련성
△69년생 △분교 의학과 졸 △99년~현재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산업의학과 과장

▲이금배=흰쥐의 뇌기저핵에서 망간 투여에 의한 세포자멸사와 자멸사 관련단백의 발현
▲이범성=주요우울증환자의 골밀도 변화
△37년생 △가톨릭대 의학과 졸 △97년~현재 을지 의대병원 신경정신과 주임교수
▲이종일=망간을 투여한 흰쥐의 뇌기저핵에서 아토프로시스와 nNOS의 발현
△68년생 △분교 의학과 졸 △99년~현재 분교 경주병원 해부병리과 전임의
▲한동근=카드뮴이 백서의 정소조직과 정자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토코페롤의 독성 완화 효과
△65년생 △경북대 의학과 졸 △현재 대구 파타미 병원 산부인과 과장
▲황선보=DMBA(7,12-dimethylbenzanthraene) 투여로 유발된 백서 난소종양에서 G1세포 주기와 관련된 Cyclin D1,CDK4, PCNA, RB 및 p16의 발현
△66년생 △분교 의학과 졸 △2000년~현재 부천 황선보 산부인과 원장

△심오로
△김정열=환경정보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최정열=원/탈러 환율결정이론의 실증분석 -자산시장접근법을 중심으로
△박도준=자유무역협정상의 농산물분야 협상에 관한 연구-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변준영=개정중재법의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오재성=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실태 및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의 WTO 가입이후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혜영=Lidocaine을 사용한 상박신경총 차단시 Clonidine을 첨가하면 마취와 제통시간이 연장된다.

△이종수=Expression of the NR2A and 2B Subunits of NMDA Receptors in Hypoxic Newborn Rat Hippocampus.
△이춘관=신석에 대한 충격과패쇄술 후 신경장의 저항지수 변화
△박승윤=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Fibronectin Gene Expression by NF-κB
△신승철=Expression of c-fos and GFAP in Rat Hippocampal CA1 and CA3 Following Transient Exposure to Hypoxia.
△김도훈=키토산 올리고당의 함량 및 압력제 효과

△고유=Reactive Astrocytosis in Postischemic Rat Hippocampal Formation
△추동훈=미추마취시 첨가한 Fentanyl 혹은 Clonidine이 술후 진통과 요정체에 미치는 영향
△서진천=윤문 모반과 백반증의 상관관계 연구

△김연진=E test를 이용한 Candida 균종의 Azole계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
△독고향=Alzheimer’s disease 치료제의 신경세포 보호작용 연구
△이종희 =아미노피리디닐기를 가진 Cavitand의 합성 및 금속이온과의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재영=NOTES ON THE PROPERTY A AND THE ANNIHILATOR CONDITION.

△조기선=복합모드 로직을 이용한 ASIC 설계방법론에 관한 연구
△조영국=Variants of Frame Homomorphism and their Properties.

△강성진=15-(P- [123 I] Iodophenyl)-7(R,S)-methylpentadecanoic Acid의 합성과 표지에 관한 연구

△김중리=Poly(p-Phenylenedimethylsilane)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연구
△황영식=2.4GHz CMOS 저잡음 증폭기의 설계
△성규석=RF magnetron sputtering deposition 법에 의한 SiO2/Si3N4/SiO2 절연막의 형성과 특성 연구

△이경태=The study on culture methods, investigation of chemical properties and its biological assay of Grifola umbellata.
△이지은=Embeddings of abstract manifolds in Euclidean spaces
△김일구=Moosbauer-분광법에 의한 알칼리 금속-Nitrosylpentacyanoferrates(II)의 불성
△심아영=3’ - [18F] Fluoro-3’ -deoxythymidine의 합성과 표지 반응에 관한 연구
△조현태=TeO2의 광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이범준=Poly(dimethylsiloxane-b-butadiene)urethanes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연구

△강분석=새로운 Cavitands의 합성과 금속 결합 연구

△문호성=질사 k-Mears 방법에 대한 군집 분석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최경근=몬테칼로 방법에 의한

Gamma Distribution의 형태모수 검정에 관한 연구

△서형주=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방

보전에서 의 최적주기에 관한 연구

△김진화=DVD의 PRML용 6-bit 500MSPS CMOS A/D 변환기의 설계

△정혜선=Investigation of initial stage for growtn of CdTe by MBE on Si(100).

△장대석=CMSO 전력증폭기 설계방법의 연구

△김두수=열처리 및 표면처리가 p-GaN의

접착특성에 미치는 영향

△나유삼=영상신호처리를 위한 고성능 8-bit

A/D 변환기의 설계

△김지연=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의 리

보솜 DNA

△신혜선=Phylogenetic Relationships in the Genus Coprinus and its Allies based on rDNA

ITS Sequence Data.

△장병철=식식기반사회와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박병배=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조절이론에

관한 연구-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를

중심으로

△최위정=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관

한 연구

△김건훈=국회의원 총선거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제15대 총선과 제16대 총선의 비

교를 중심으로

△차수연=한국의 비례대표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곽민석=북한경제관리체계의 '위기관리

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엄경순=김정일형상문화에 나타난 북한사

회의 작동원리

△이용희=골프장 조성시 발생하는 지형훼손

의 저감방안 연구

△이승주=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대

환경설계

△고승희=역사문화 도시의 지속 가능한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연구-경주도심의 물리적

변화가 경우 거주자와 방문자의 인식,감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성호=Inhibitory effects of Bombycis corpus

extracts on mouse calvarial bone resorption

induced by IL-1β

△전동주=Effect of Yukimijihwangtang-Jahage

on the diabetes mellitus in Zucker rat.

△김태기=시호사물탕이 t-BHP로 유도된 간

세포의 산화적 손상 및 자유기에 의한 지질

과산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병노=산한농증 간염과 하법을 중심으로

한 소음인 병증론 고찰

△김소연=포공영 약침액의 아메야 효과

△김동은=삼화탕이 중간대뇌동맥 결찰로

유발된 뇌허혈에 미치는 영향

△김필주=허혈/재관류 손상 조직에서 복분

자의 항산화 효과

△김은경=조선 후기 부인과학 발달사에 관

한 연구

△이지영=복단괴지황탕이 위점막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성호=거풍지보단의 혈관이완 효능과

기전에 관한 연구

△박서우=체중감량시 초기감량과 치료기간

의 상관성에 관한 임상적 연구

△오준환=전문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김만우=태음조위탕의 항산화 효능에 의

한 간세포 보호 효과에 관한 연구

△한을주=갈화해정탕 투여 및 운동 부하가

알콜 섭취 후 환귀의 혈청 지질,

BUN,Creatinine 함량에 미치는 영향

△이승희=Effects of Chongmyungtang on

Learning and Memory Performances in

Mice.

△김기봉=Effects of Xingyotang on

Learning and Memory Performances in

Mice.

△조형래='산짐집'에 관한 연구 -산과적

의미와 한중 의학교류를 중심으로

△박령준=계피나무의 부위별 항산화 작용

에 관한 연구

△김대식=마왕퇴 출토 의서중 '도인도'에

관한 연구

△김성재=Effects of Bombusae concretio Salicea

on mouse calvarial bone resorption.

△김민희='각곡식기'에 대한 연구

△한윤정=Effects of Saenggiatang on Learning

and Memory Ability in Mice.

△박경수=석창포 정유 향기의 흡입이 백서

의 경련억제에 미치는 영향

△위영택=삼자산이 흰쥐 음경조직의 Nitric

Oxide Synthase 활성 및 과산화지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

△이원창=Protective effects of Alpinae

Oxyphyllae Fructus on neurons from ischemic

damage and neuronal cytotoxicity.

△주승근=Effects of Arisaematis rhizoma

on ischemic damage and cytotoxicity in

brain.

△오세형='백증부'에 관한 연구

△김갑진=신수혈의 침자극과 황기약침이

실험용 생쥐의 면역활성물질인 cytokine의

IL-4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명래=한.중 부실체권 관리의 비교연구

△박태균=해킹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

선에 관한 연구

△양윤정=노인의료서비스정책에 관한

연구

△남기욱=정보화사회를 위한 전자정부의

실현에 관한연구

△이정용=NGO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관

한 연구-국정홍보처와 행정자치부의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권현이=한국 불교 청소년 교화론 연구

△김미경=불교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박연범=선과 평상심에 대한 연구-만자도

안을 중심으로

△김정년=불교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연

구-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용희=대승기신론의 혼승설 연구

△서정일=청소년 비행 문제 예방을 위한

불교적 해결방안 연구

△김학수=인공임신중절문제의 불교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김명림=불교신자들의 사회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

△도필선=청소년 비행에 대한 불교적 대안

연구

△김승환=불교 청소년복지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이동진=초기불교의 무아설에 대한 연구

△이정숙=불교노인복지의 발전방안에 관

한 연구-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김선아=불교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방

안에 관한 연구

△홍영애=불교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과 개

선방안

△김관표=한국해군의 전력기획 발전방안

연구

△김정식=해군장교 우수 자원 획득 방안

△권오봉=한국형 항공산업 발전방향에 관

한 연구

△오경현=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한

국의 대응방안 연구

△김오현=노인소득보장제도의 활성화 방

안에 관한 연구-취업을 중심으로

△권기원=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경상북도 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황상현=한국군의 국방 C4I체계 발전방

안 연구

△송택근=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국안보

에 관한 연구

△임동욱=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

한 대책-유형별 피해실태를 중심으로

△이종원=한국기업의 연봉제 도입에 관한

연구

△부선호=기초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중심으로

△오원석=신세대 질병의 특성이 군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택순=차지구 자주재원확충방안에 관

한 연구-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중심으로

△장상훈=보험규제완화에 따른 감독행

정 변화에 관한 연구-손해보험분야를 중

심으로

△김경희=한국 민.군경용기술개발의 발전

방안 연구

△김재규=뽕소니 교통사고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호=경찰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권혁범=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영=시스템경비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두석=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

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상은=민간경비 역할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박현기=인터넷PC방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은주=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은미=청소년 봉사에 대한 태도와 실

천에 관한 연구-일반 청소년과 교회 청소년

년 비교

△송영안=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김명주=서울시구립청소년공부방의 활성

화 방안-동대문 청소년독서실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김필례=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송파노인복지관 이용

자를 중심으로

△이상엽=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방

안-의정부시의 경로당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숙희=가톨릭소년의 문제와 그 대응방

안에 관한 연구

△김연수=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심리적 가

정환경 요인과 개선방안

△송현자=사회복지법인 설립과정의 문제

점과 과제

△조성옥=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승현=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순혜순=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최혜순=조계종 재가노인 복지사업 실태

와 개선방안

△김지숙=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

선방안

△이명숙=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

스 발전방안

△윤영자=인터넷상의 청소년비행 실태분

석과 대책 연구

△유정림=취업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향상

방안-계룡대지역 여군무원을 중심으로

△김원기=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류동철=노인정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서정숙=우리나라 관광구를 중심으로

△김범수=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

안에 관한 연구

△이기행=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

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사례를 중

심으로

△최희순=어린이집 운영체계의 발전방안

연구-서울시 구립 및 사립 어린이집을 중

심으로

△김은실=스포츠클럽 참가와 청소년 비행

의 관계

△구재태=고객지향 경찰서비스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이해분=자동차 구매 후 관리 수단으로

서의 텔레마케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자교=우리나라 기업인용평가 방법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능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형석=우리나라 은행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양옥란=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사태 연구

△류호숙=부가가치세제를 통한 거래 양성

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원현=이동통신시장의 CRM 구현성과

에 미치는 중요요인에 관한 연구

△조성호=통일한국의 국토개발 방향에 관

한 연구

△김희동=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박재영=통화선물시장이 외환시장 변동

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한국선

물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를 중심으로

△이대승=공정성 및 리더쉽이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

△김기영=한국 연봉제의 특성에 관한 실

증적 연구

△남재일=리더쉽과 커뮤니케이션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육군 기

계와 부대 대대급 간부를 중심으로

△정진용=한국 육안 시장에 관한 연구

△김동현=연료 첨가제의 마케팅에 관한

연구-Oxy사의 엔진 내부 세척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준희=우리 나라 은행 마케팅에 관한

연구-CRM(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한상훈=판매촉진전략이 매출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Apple Computer를

중심으로

△염은주=대학서비스가 학생만족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지방대학교를 중심으로

△김도형=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특히 은행 거

래고객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병욱=산용감리제도에 대한 고찰과 신

용등급재평가 중요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은행의 실무사례 중심으로

△박성영=무역업체의 인터넷 EDI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현진=경쟁정보실 인력아웃소싱에 관

한 사례연구-S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강정경=서양음악사 Web Based 학습

System을 위한 Prototyping 평가에 관한

연구-김병훈=전자책(e-book)의 유통시스템

발전에 관한 연구

△우근식=백화점에서 데이터마닝을 이

용한 고객 충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A 백

화점 사례를 중심으로

△최원선=KOSPI200지수 옵션시장에서 내

제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실증적

연구

△박승일=지방 여행상품 개발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진=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영향-벤처

퇴임교수 인터뷰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행운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편집자

“어제 그 강단엔 아직도 당신의 향기가 납니다”

여성 불교학자로서의 삶 끊임없는 가르침으로 이어나갈 터



리영자 교수
(불교대학 불교학)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5년 전부터 이 시를 외며 퇴임을 준비해 왔다는 리영자(불교학) 교수. 본교 불교대학 학사, 석사를 거쳐 일본 다이쇼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리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불교학자로서 1970년 본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30년. 불교대학장과 불교대학원장을 지내면서 리교수는 강단에서 늘 학생과 함께했다. “예전엔 학생들을 엄하게 가르쳤다”는 리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된다”며 3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음을 느낀다.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는 작은 소망으로 불교학과에 입학했지만, ‘공기’와 같이 늘 주위에서 격려하는 교수와 선배들의 사랑은 리교수를 결국 불교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한 선택이었지”라며 당시를 회상하는 리교수의 모습에는 한 평생을 바친 불교학에 대한 사랑이 비친다. 천태법화사상에 대해 리교수는 “모든 중생은 성불한다는 평등사상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일까? 그는 여성학자이기도 하다. 평소 유교적인 여성 차별관에 반대하고 있던 리교수는 1980년 본교 여학생들을 맡으면서 여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때부터 리교수는 여성학에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1982년 당시 흔치 않던 ‘여성학 강좌’를 개설해 직접 강의했다. 그리고 꾸준한 학문적 활동으로 1992년에는 여성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렇게 교수재임기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친 리교수는 퇴임 후에도 그리 한가할 것 같지는 않다. ‘불교와 여성’ 등의 저서를 출간하는 것과 더불어 외부강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명’처럼 선택한 불교학은 리교수가 강단에서 떠나도 떨려야 할 수 없는 인연인 것 같다. 리교수는 “인연과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불교의 연기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학생으로, 교수로 리교수가 본교와 맺은 인연은 퇴임 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가르침을 전할 리교수의 모습이 기대된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남을 먼저 생각하고 꾸준한 학문탐구로 성숙한 사람돼야



오국근 교수
(문과대학 영어영문학)

“인터뷰를 꼭 해야하나. 난 인터뷰 제일이 아니라서 말아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싫다며 멋쩍은 미소를 짓는 오국근(영어영문학) 교수는 퇴임하기 한달 전부터 연구실을 정리하고 후배교수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퇴임이라고 해서 아쉽거나 특별히 어렵다는 생각은 없네. 다만 30년을 내 집처럼 생활하던 연구실을 정리할 때 조금 섭섭하거든.” 담담하게 애써 웃으며 퇴임을 받아들이려는 오교수이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나 보다. 1954년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면서 본교와 맺어온 인연의 끈은 그가 1971년 영

문학과 교수로 처음 강단에 설 때부터 퇴임을 앞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다고 한다. “인생은 결코 완전하지도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네. 그렇다고 불평만 할 수 없지 않잖나.”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인 오교수는 지난 교수생활을 되돌아보며 “후회없다”라는 단 한마디 말로 정리한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네. 내가 대학생일 때보다 경제 조건이나 사회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그 때보다 공부하려는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지.” 오교수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깊은 만큼 걱정이 앞선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자신이 쓴 그릇을 깨끗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고 인생 지침을 밝히며,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오교수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철학이나 문학 등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고 싶다”며 배움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퇴임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젠 좀 쉬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만약 기회가 된다면 책을 한 권 쓰는 것도 괜찮겠지”라고 여유롭게 대답하는 그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하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살아갈 오국근 교수의 모습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스승으로 자리할 것이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외부일정으로 농친 제자들과의 시간 퇴임후에 되찾을 계획



황창규 교수
(경영대학 경영학)

“퇴임 후 다섯 손자들의 재물을 보는 것도 꽤나 쓸쓸한 재미일 테지.” 자상한 할아버지와 같이 미소를 짓는 백발의 황창규(경영학) 교수의 모습에서 원숙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우리나라 광고학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황교수가 18년 동안 몸담았던 본교 강단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케팅학회 등 잦은 외부활동으로 인한 바쁜 나날 속에서도 휴강을 안하기로 소문난 황교수. 그럼에도 “외부활동으로 바쁘다보니 학생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그의 제자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어려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인간 됨됨이가 정말 바르다고 할 수 있지.” 본교 학생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황교수는 그동안 정들었던 학생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가 재직했던 경영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우리 경영학과는 가족처럼 정말 정다운 분위기야.” 인터뷰 내내 황교수는 지금껏 몸담았던 경영학과에 대해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황교수는 그가 경영학과 제자와 교수들과 맺은 인간적인 유대의 끈을 퇴임 후에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 날도 그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손자나 둘째딸이었다는 여유로운 말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황교수지만 그에게 ‘한가함’이란 단어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퇴임 후에도 그는 학부 강의와 전부터 해오던 연구 때문에 재임시절 못지 않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앞으로도 강의 때문에 당분간 학생들 얼굴을 계속 보게 될 걸세”라며 그는 학생들과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 마냥 기뻐했다. 황교수에게 퇴임은 그의 이름이 적힌 바쁜 나날 속에서도 휴강을 안하기로 소문난 황교수. 그럼에도 “외부활동으로 바쁘다보니 학생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그의 제자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푸른 나무숲의 꿈 유토피아 재목과 같은 제자들과 함께 일구고파



박교수 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 산림자원학)

“나처럼 이름대로 산 사람도 흔치 않을 게야.” 퇴임을 앞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진난민하고 자신감 넘치는 박교수(산림자원학) 교수.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의 이름은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하다. 이름 덕을 많이 봤다며 멋쩍게 웃는 그는 교수라는 직업이 천직이라고 여겨질 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한 사람이다. 충북 옥천 출생인 박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태추, 밤, 호두 등 아름답디 유실수면 가난이고, 굶주림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라며 유실수 연구를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다.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한 우장춘 박사처럼 되고 싶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그의 모습엔 꿈은 품은 17살 소년이나 살아 숨쉬고 있다. 박교수는 이 꿈을 위해 어느 나무들보다 열매와 산소, 목재를 풍부하게 생산해 내는 유토피아란 나무를 개발해냈다. “유토피아는 천년을 사는 나무거든.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멀리 보고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싶었네.” 박교수는 모든 제자들을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일을 대물림 할 재목으로 생각해왔다. 사람이 어떻게 크느냐는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좌우한다며 그렇기에 제자들과의 관계를 앞으로도 소중히 하고 싶다고 전한다. 떨어진 유토피아 열매를 주우며 박교수는 “교육과 연구 모두 이혼이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돼야지”라며 자신의 인생지침을 확고하게 밝힌다. 지난해 12월 중국 연변대 과학기술원 석좌교수로 임명된 박교수는 퇴임 후에도 계속 강단에 설 예정이다. 또 수원에 유토피아 연구소를 건설해 보다 체계적 연구와 함께, 중국을 시작으로 유토피아를 세계에 퍼뜨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난 150살까지 뛰는 가슴 그대로 일할 걸세”라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 이렇게 항상 푸른 꿈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평생 푸른 나무숲과 함께 하는 그의 삶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나만의 사랑방에서 온고지신의 삶 퇴임후에도 계속할 것



이문보 교수
(공과대학 건축공학)

옛장수나 들고 다닐법한 고깃집 못되게 위, 20년 넘게 써오고 있다는 걸레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이 없는 낡은 교수실 책장에는 몇 개의 상자만이 떠나는 이의 발자취를 대신하고 있었다. 29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이문보(건축공학)교수 역시 그의 물건들처럼 오랜 세월 이 곳을 지켜왔다. “이제 드디어 해방된 느낌이야. 아쉬움이야 남지만 시원한 마음이 더 크지.” 퇴임을 앞두고 집을 정리하며 퇴임이후 찾아올 여유에 흐트함마저 느낀다는 이교수에게는 화교를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

작으로 다가온다. “이걸 왜 버려? 아직도 멀쩡한데...” 녹슨 가위 한 자루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교수는 ‘세월의 때’를 간직한 그의 가위처럼 제 할 일을 다하고 싶다고 전한다. 퇴임후를 위해 마련한 ‘사랑방’은 그런 그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예전에는 ‘사랑방’이 ‘인방’과 구분되는 남자들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 그래서 난 우리집에 나를 위한 ‘사랑방’을 만들었지.” 그동안의 논문들을 모아 논문집을 발간할 것을 생각중인 이교수는 이제 자신의 ‘사랑방’에서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교수는 “진짜 스승은 주위의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명성을 듣고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맥과 비리물 열락진 교수사회를 꼬집기도 한다. 스스로가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교수는 특히 스승의 위상과 역할이 퇴색되는 오늘날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사고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것”을 당부했다. “어느 날 학생들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생각해 내는 것을 보고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지.” 요즘 학생들을 보면 종종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는 이교수가 언제나 열린 시각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대해 본다. 손상민 기자
neo8292@dongguk.edu

동국의학 발전의 밑거름돼 뿌듯 이젠 멋스러운 문인의 삶 즐길터



김두희 교수
(의과대학 의학)

쌩쌩한 기운이 아직 가지지 않은 2월의 오후, 의학 연구소에는 올해로 퇴임을 맞는 김두희 교수(의학)의 물건들이 하나씩, 새자리를 찾아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책상을 정리하고 있으니 퇴임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는 것 같네. 하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지 않겠나?” 얼굴에 한가득 웃음을 띄우고 나직한 목소리로 되뇌이던 그의 한마디는 평생의 교직 생활에 대한 아쉬움과 무게감을 차분히 감무리하고 있는 듯 하다. “동대와 인연을 가진 건 지난 95년부터

지만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 만큼 많은 추억들이 남는대네.” 경북대에서 교직의 첫 발을 내딛은 김교수는 교직생활의 마지막 막을 보낸 본교에서의 시간을 되짚으며 여러 가지 사연을 털어놓는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어렵게 들어온 의대를 졸업하고도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할 때였네. 내가 처음 왔을 때에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 제자들에 대한 격정부터 앞선 김교수. “의대 교수들의 단합을 위한 교수연수원과 학교소식을 담은 주보를 만들기도 했다”며 보람됐던 지난 일을 되새긴다. 또한 김교수는 “강의동은 따로 짓고 의학동 전체를 의학연구소로 바꾼다면 더욱 좋은 의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이며, 본교 의대에 대한 사랑을 슬며시 내비치기도 했다. “교육자로 살아온 삶을 후회해본 적은 없네. 하고싶은 예방의학과 환경의학에 대한 연구도 맡겨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보았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만족스러워 하는 김교수는 퇴임 후 생활에 대한 준비도 마친 상태이다. “남은 여생은 글을 쓰면서 보낼 생각이야. 의사 공부에 쫓겨 해보지 못한 문인로서의 꿈을 키워야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더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김교수의 모습에서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는 사람만의 멋스러움이 느껴진다. 이제 문인으로 새로이 태어날 그를 기다려 본다. 형진우 기자
sniper@mail.dongguk.ac.kr



남북을 비추는 세 가지 시선-선사인 전

작품에 담은 통일과 냉전의 두얼굴

다양한 매체 통해 본 햇볕정책 ... 현실 모순 극복 우선되어야

“돌이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면 돌이었던 문화는 여러 개가 되리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물고 온 통일 바람이 올해 역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가 오는 24일까지 문예진흥원 인서미술공간에서 열리는 '남북을 비추는 세 가지 시선-선사인 전'이다. 이번 전시 주제인 '선사인'은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고유명사 '선사인 플리시(Sunshine Policy)'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박찬경(36), 장영혜(43)와 호주의 슐른 호아즈(58)로 구성된 작가 3인은 각각 사진·슬라이드, 비디오, 다큐멘터리라는 매체로 햇볕정책 속에 숨어있는 현실의 모순을 짚어내며 이러한 모순을 극복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공동경비구역JSA'의 판문점 세트가 들어서 있는 '서울종합촬영소'의 모습과 남한의 모의시기전투장 세트를 함께 제시한 사진으로 냉전 이데올로기의 허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암시하는 박찬경의 작품 '세트'.

박찬경 씨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보다 햇볕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어 안타깝다"며 "냉전 분위기를 탈피하고 남북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슐른 호아즈의 '서울일기'는 98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2년간의 사건을 외부자의 시각을 겹치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포착한 편린들을 관객에게 제시한다.

전편 '평양일기'가 남북화해무드와 공존하는 국가보안법이나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같은 모순적 상황을 표현한 것에 이어, '서울일기'는 사건과 사람들 중심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는 이들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과 제도적 장치를 그린다.

이는 남북 문제와 햇볕정책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하나의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백지숙 씨는 "통일 시대를 앞두고 과연 문화의 영역에서 요구되며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며 "남북 문제에 대해 사색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요구하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규모는 작지만 냉전과 통일 사이에서 극복해야만 하는 햇볕정책의 대립되고 모순되는 현상을 짚어냄으로써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이 오른쪽의 서울 모의 시기전투 세트와 왼쪽의 폐허가 된 서울 시기지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평화통일에 앞서 닦진 문제점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주경희(한국예술종합학교·27) 씨는 "남과 북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첨단 미디어로 새롭게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며 "통일 시대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다"고 감상을 말한다.

남과 북이 만나는 것은 남과 북

의 사회와 문화가 만나는 것을 뜻한다.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가 만날 때 갈등이 뒤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갈등을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보다 다양한 민족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선사인 전'은 이런 맥락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해야 함을 시사

한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남과 북을 주제로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는 문화계의 활발한 활동은 남북의 이질감을 최소화시키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통일 기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문화 정책 포럼 시사중계

“가요 순위 프로그램, 이의있습니다!”

대중가요란 일반 대중이 즐겨 부르는, 특히 방송이나 음반 등을 통해 널리 유행하는 노래를 지칭한다. 그러나 몇 해전부터 대중가요는 우리가 인식

하지 못하는 사이 10대의, 10대에 의한, 10대를 위한' 가요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가요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와 민주주의 심재권, 정병국 의원실 공동주최로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포럼이 열렸다.

본고 원용진(신분방송학)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포럼에서 대중음악평론가 강현 씨는 "음반시장의 50% 이상이 10대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다"며, "대중음악시장의 10대소비자를 시청자로 끌어들여 방송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수단으로 순위프로그램이 이용되는 것"이라 말했다. 민연련방송모니터위원회 간사 이승지 씨의 강현 씨의 발제를 뒷받침하며 "방송3사의 가요순위프로그램을 6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출연 가수가 몇몇 인기가수

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지오디의 경우 총 18회 방송중 16회, 유승준과 임창정은 14회, 핑클은 10회 출연을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르 편중현상이 두드러져 댄스 음악의 경우 방송3사 평균이 5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모니터 결과를 전했다.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동원 씨는 "한 세대에 편중되어 순위 매겨진 가요가 나이고하를 막론한 모든 세대의 인기가요인양 치부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중이 방송에서 만들어낸 순위에 따라가는 비정상적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은 회의장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중음악평론가 신현준 씨는 "가요순위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가요장르별로 차트를 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음반제작권 담당이사 백강 씨는 "순위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예전에 비해 어느정도 자리잡은 가요의 컨텐츠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말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KBS 뮤직뱅크의 주임PD 박해선 씨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라며, "KBS의 경우 2·30대를 위한 '이소라의 프로포즈', 4·50대를 위한 '콘서트초대', 60대 이상을 위한 '가요무대', 가족 시청자를 위한 '열린음악회'로 음악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위한 '뮤직뱅크'만이 가요순위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가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대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러 온 문제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동조해 왔다는 점이다. 대중 스스로가 우리 가요를 수용하는 태도를 주체적으로 세워야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점들이 수정되고 보완되며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은경 기자 pisik20@dongguk.edu



한국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은 포럼 참가자 뿐 아니라 객석에서도 활발했다.

<9면에서 계속>

김재형 김경원 임민식 강봉구 이희경 최상욱 이재근 김경원 조윤정 손지혜 이윤경 손성남 서수연 김해란 천기경 김보영 주중호 이재근 이상구 박종현 이영희 김진현 김진현 허경태 김진관 양재원

생화학전공 박호영 김병호 김영록 이준호 이종석 박준석 조대연 황원석 윤성환 한승철 정재섭 조원제 장원석 김경희 정원일 정종호 이도현 김미정 정정철 정우현 최은은 최은미 천은주 조은희 김함미 홍성희 윤정진 차중호 조진형 장미경 정현도 김신엽

정보통계학전공 박종호 김영진 김선곤 박지호 김성영 최희훈 김현수 김국포 추연식 정종오 강기서 황승상 박순석 김성환 김명환 전구진 남상엽 남정미 조혜정 이해경 이삼기 김현정 신재룡 이미정 박진혜 나혜연 신수경 정지은 홍은주 이진태 이종렬 백재홍 도기복 김갑하 조정욱 신현호 계승범 박성진 강은석 김영기 김상현 김경미 조주원

컴퓨터학전공 강희중 한동욱 장재수 정석구 김일규 서동훈 전부상 정지홍 전병재 김은호 백민석 이수현 최재원 이상현 조용필 강진호 손유경 이민혜 박의진 최수영 표예진 이혜원 박지영 이지형 최종호 이정지 유옥순 서인숙 박혜진 김수현 장유리 장미정 도요진 장선혜 전태상 이철형 신은동 박남건 이갑원 김동환 김근호 김상현 장석현 성병식 손대규 김상현 임영규 김경희 배동주 김용수 이동호 오주석 이현원 윤정원 한진희 정성태 양화형 문병일 박덕찬 김운주 황원주 김명범 손지현 이윤영 조은미 최화환 임종우 김원삼 이동미

조경학과 김민석 정영일 한규식 박순우 정두선 전진도 이성우 정명민 이인호 백승훈 김규태 한정현 허성욱 황용호 이주영 김성화 김중훈 김경문 백승준 배창덕 전제양 지지철 석민철 윤종현 김태호 김재홍 공원삼

김태성 이태철 김찬동 권진욱 김은성 진미영 조우람 김혜은 이재연 오정주 김미진 윤인선 서재호

안정공학과 문희준 박원필 구재형 정영록 이종일 김호영 조희구 유원익 김현기 김보한 이경복 임정훈 정상호 송희만 공중혁 김해정 한영수 엄수현 김기천 김선화 이주현 김명희 이창재 김경섭 김재인 홍성철 전병호 성기호 이승욱 김영춘 변경호 류기룡 김광관 이삼인 이윤우 김희준 윤대길 변광섭 차광환

수학교육과 이도영 김홍식 김도진 김동은 이영범 권영민 정현석 권민숙 허은희 이준석 이지훈 정은주 박해일 조혜정 류진숙 최미희 최희숙 권희희 김지은 박정숙 장혜숙 오은혜 권경민 이재근 김미애 신성우 안진석 고석란 이승현 김영우 조현철 서주연 황미정 김경이 박소형 김영진 정규상 박경일 진장근 김동민 김경희 김미옥 김성희 이덕희

가정교육과 최수진 이선에 한진영 안금숙 강영화 김명희 최은주 조부녀 강혜영 주은선 최미성 김다혜 김민정 김무순 김조은 한지선 신수미 김길선 이지은 서해정 이영희 장현아 하미연 이수정 이주연 김지연 박진희 강경숙 김은주

법정대학

행정학전공 김성영 임성룡 박승락 김도형 김병찬 이상진 차원선 김택수 김진환 김상환 양원보 김용구 최민재 김현석 박진호 김민호 김재근 안혜종 김명하 이기영 최혜숙 조순애 박소형 이선경 김도현 손지은 김인숙 공미경 정정욱 하주연 김주영 김경아 장영순 이지원 박영숙 오순정 이옥숙 이효환 양현모 최성훈 안휘철 박기성 정희달 원정희 박경문 박승엽 최영선 김소연

국제관계학전공 장병우 조성일 방광현

신성아 장은지 천지영 문영희 정일신 박수현 도선정 조희진 조은영 홍상아 김명덕 이상진 서지찬 박미애 방호병 양연식 이재영 백승환

법학과 이재욱 정희석 노희복 조형준 안영규 조성훈 정현재 최지훈 손규진 전도성 한운진 김경태 이형수 이경주 손명철 공재필 유 욱 이상훈 권준범 이문수 김 빈 신용석 이정우 신성식 이재영 임재현 임성욱 윤희진 황다혜 임영국 김규식 허정원 이원일 김현아 성은경 정성미 박지영 박영주 이미열 배민선 임주연 박은정 권수현 장석수 김영호 양준혁 김보성 이도현 이상우 최광민 이은주 김형주 장진욱 이정목 오병택 김재일 이동호 이지훈 박도훈 신동범 조경동 이덕희 김대홍 최상민 조인덕 김용훈 최현수 손수일 오대국 서병철 김태현 정현호 김강석 최원달 유근우 김동수 안병환 심재수 최영목 도영호 김동우 박기훈 최성민 박수현 이승혜 류지수 손동현 최진용 김형현 백만식 최승룡 김일영 염해식 김중국 이경태 김주식 조장길

상경대학

경제학전공 배규환 이도한 이상준 권용만 김동석 김현근 유무상 김진숙 김동준 이정식 오승택 임종민 이승수 이진원 신원재 박관재 김익기 송훈래 김보근 윤성만 임성훈 이진호 김태희 이봉기 조재모 김현영 김경태 이현상 정화정 박준혁 김진권 윤호중 안상호 이영애 한효정 이강혁 김보민 김세인 김재현 김진삼 최동하 정재호 김광민 박준규 박선숙 윤순화 노경화

국제통상학전공 신강용 김도형 윤형준 김동환 윤대일 홍성규 한상수 설봉찬 김도완 김중문 임재훈 하준기 임원혁 양성용 박규열 서연미 유동호 박상수 윤형석 이은정 박인주

김동수 손숙희 이정림 임성규 김조은 김복연 김소영 구지은 박달숙 김보현 최충현 한민영 신홍주 김정희 이효진 이수민 김현주 정덕명 신재기 김영민 추옥립 신대은 김경아

경영학전공 이재욱 김재관 신동일 최중호 오홍근 이호창 이민주 이광훈 이창실 박종근 박상식 김동혁 김용열 최 진 김도훈 전재역 김 현 윤영균 김현중 김동우 최영진 이상기 허세진 전수진 소인영 윤지환 김현상 손두호 서영지 임재우 윤성훈 김유미 이동희 임선영 최선영 박한재 박해주 구분재 이문희 이상우 박소문 이수영 김명만 김동훈 신화진 박선영 권현정 권현주 최현주 이현정 권영준 김우영 조미정 김영숙 장선자 김태영 박지민 배은실 공정혜 김미선 권삼기 김서영 손민정 안태정 김선에 황순연 김주형 조숙영 김영주 이봉애 남정목 이신정 이효진 안은주 석운경 정구민 열성미 김나연 이수정 김주향 박운정 임성균 구혜미 정동주 김미선 안지영 정정숙 이현민 김선경 주신정 김지동 이지은 신상현 신동준 최재영 노용우 손수경 이지정 최상식 진성영 황승훈 김철민 김현숙 최석진 김상태 이상철 조규상 박용필 정성훈 배성우 서병식 이현식 최진환 신동철 김성노 신민철 박종길 조승민 최성운 임후영 정덕영 박태원 김성범 박성국 진정금 김미란 김혜정 한영훈 최정선 김숙화 윤미정 손동경 박인아 김민정 추민성 진해정 고은희 김수진 허순영 김경은 이상재 김중우 설정우 장지은 조주현 송재훈 이석환 안은진 이영미 정유정 김해범

회계학전공 신진오 권혁성 하종욱 박준환 고관수 이승영 김중서 정원주 조성민 박성제 김민수 김대성 정창서 박광만 허규란 이재혁 황보명 홍인표 구원일 김동훈 조성호 최태욱 김한수 정우권 김운수 김희성 송진욱 김중석 김중문 임재훈 하준기 임원혁 양성용 박규열 서연미 유동호 박상수 윤형석 이은정 박인주

김경아 이강현 홍민정 손은정 이윤정 임윤정 최규수 이선영 이은숙 김성희 한미진 허혁미 박종순 권유정 이주연 서복희 유우진 최경미 이말함 이창수 안경미 김성구 김창득 김수정 김태건 배준호 정성락 이현철

정보산업학전공 이승광 박인성 최민수 김세연 조규중 정동희 김도연 전재호 최자현 안태건 김영진 백승혁 차형석 김은진 장영철 최지원 최성일 김태연 김재연 박상욱 최진욱 박경희 임상희 이두이 조지희 최원희 손수진 이희경 임영진 전순영 송원희 진소영 한남미 양수현 한해미 주현아 이미선 김영식 최순정 김병목 이신욱 윤재형 김용창 서동훈 송서현 김우성 안성룡 오완현 정은호 조인선 오상목 조양규 강성민 오종관


관광대학 김경아 이강현 홍민정 손은정 이윤정 임윤정 최규수 이선영 이은숙 김성희 한미진 허혁미 박종순 권유정 이주연 서복희 유우진 최경미 이말함 이창수 안경미 김성구 김창득 김수정 김태건 배준호 정성락 이현철

관광경영학전공 김연환 김귀영 이대용 최희숙 최형태 전용수 서정민 심영선 이철호 김새롬 정현주 이해경 김성기 김보현 차상경 최재훈 신은주 조재근 최은정 정성욱 이문호 이동익 우광진 황종훈 서동찬 장준혁 김미영 김용중 박은영 이상호 손명희 김혜수 박부연 김다혜 최영란 권순태 문현철 김도균 조의근 박은주 이은숙 김형은 이우진 이창인

호텔경영학전공 김명주 김용유 허경희 김현숙 김현철 유지호 조효진 이창현 정재훈 정영은 윤연화 조상문 김익현 권현정 박수현 김수현 이화정 김형조 이경일 장지영 허희정 김유미 김현지 김미양 문상원 심태보 최병준 표수조 이혁재 구원일 손정희 김민지 류종화 박경수 이정희 임세라 서지혜 박규원 박해일 이승현 이남희 홍현주 김고은 이숙경 이영미 김경현 김현주 송문찬 김경선 이소영 김용수 박은정 박홍식 김리라

달하나 천강에

사회인과 직장인의 갈림길



강 정 구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대학생활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이제 곧 대학생이라는 특권과 신분에서 일상인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범인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리바꿈을 사뭇바꿈하는 계기로 삼아 학창시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판관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안타깝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직장을 배출하기 위한 취업자 양성소는 아니다. 대학의 본연은 사회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의 자질을 양성하는 곳이다. 직장이 되기 이전에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올바른 사회인이 되기 위한 고민은 없고 직장이 되는 데만 치우친 느낌이 만연하다.

훌륭한 직장인은 훌륭한 사회인일 것을 전제로 한다. 직장인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겐 전제조건이 있다. 직장인으로서의 이익추구 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추구와 서로 접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이익에 배치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이고 패거리주의이면서 파당적이다.

이래서는 결코 사회의 청량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탁제가 되어 사회를 오염시킨다.

한 때 한국 직장인의 신화였던 (주)대우의 김우중과 그 아래 하수인이었던 사장엘리트집단은 온갖 분석결산으로,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사기행각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가져 온 장본인이다. 이들은 학창 시절에 그대로 사회의 정의를 위해, 또 올바른 삶을 위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검은 유혹이 별로 없는 학창에서만 이들의 고민과 다짐은 유효했던 것이다.

사회정의와 도덕적 기준 등을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이나 주위의 친척, 친구, 학교동기동창, 고향사람 등과 결부되면 이러한 다짐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 그리고는 금방 패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썩어져 온 것이다.

이제 동국의 마당을 떠나는 우리 졸업생들은 사회의 청량제 역할에 대한 학창시절의 다짐을 마음속에만 가졌던 역사로 그치지 말고 이를 현실에서 당당하게 실현하는 진짜 청량제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훌륭한 직장인이 되고 동시에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동국인이 될 것이다. 동국대학 졸업장은 이러한 때 더욱 한국사회에서 빛이 날 것이다.

매체비평

- 음반 편

'연가(戀歌)

“배우의 사생활로 엮은 모음집, 너무 쉬운 길 아니야?”



발라드 68곡이 4장의 CD에 담겨 발매된 '연가(戀歌)', 배우 이미연이 이혼 심경을 담아냈다하여 더욱 화제에 올랐다.

모음 앨범 '연가(戀歌)'의 대중적 인기가 화제거리인 모양이다. 얼마 전 이혼한 배우 이미연이 실연의 아픔을 달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표지에 실려 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선곡했다는 무려 68곡의 발라드가 실려 있는 4장짜리 CD가 내용물이다. 발매 한달여 만에 40만 세트, 그러니까 160만장의 기록적인 판매고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무엇이 이 음반을 이렇게 대중적인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했을까. 무엇이 '발라드'라는 장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때로 대중문화는 대중에게 '슬픔'을 제공함으로써 장사를 한다. 이른바 '카타르시스'라는 말의 뜻과도 통할 테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가상적인 슬픔

속에서 눈물을 쥐어짜고 나서 속 시원함을 느끼는 속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에게는 그런 취향이 강하다. 조성모의 인기가 서태지를 능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모음집엔 '최루성' 발라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발라드 앨범을 이미연이라는 배우가 모았다는 것에 상업적인 포인트가 있다. 최근에 겪은 사랑의 아픔을 대중이 공감하리라는 것이 그녀를 내세운 기획사의 핵심 의도였을 것이고, 그 의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편이다. 또 다른 성공의 근거는 이 앨범이 80년대 이후 대중의 귀에 쫄깃하게 남아 있던 발라드를 거의 망라했다는 점, 68곡이라는 곡 수도 곡 수지만 나미, 김민우, 신성우

를 포함하여 최근의 god, 조성모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의 가수를 포괄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386세대를 비롯, X세대, N세대 등 다양한 세대의 '눈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너무 쉬운 성공이다. 이미연이라는 배우의 개인적인 슬픔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앨범의 제작자들이 '발라드 모음 앨범'이라는 뻔히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는 대목이다. 이번 앨범을 계기로 '보다 쉬운 길'을 찾아 나서는 풍조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거나 제작에 모험을 걸어야하는 실험적인 앨범에 대한 제작자의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

물론 발라드 모음의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많은 가수들의 곡들에 다 로얄티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모으기만 하면 미래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 그저 발라드만 모아놓고 '이것은 새로운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중의 감각을 새롭게 견인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뻔한 감각'을 자꾸 우려먹는 수법은 당장은 돈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가변 가요관 전체의 귀색을 심하게 망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가요계 전체가 다 지리멸렬해진다는 걸 제작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기완
대중음악평론가
creole@hitel.net

처음 접하는 대학문화, 그 출발선에 새터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성장하는 자리... 프로그램의 질적향상 과제로 남아

신고식에 철학을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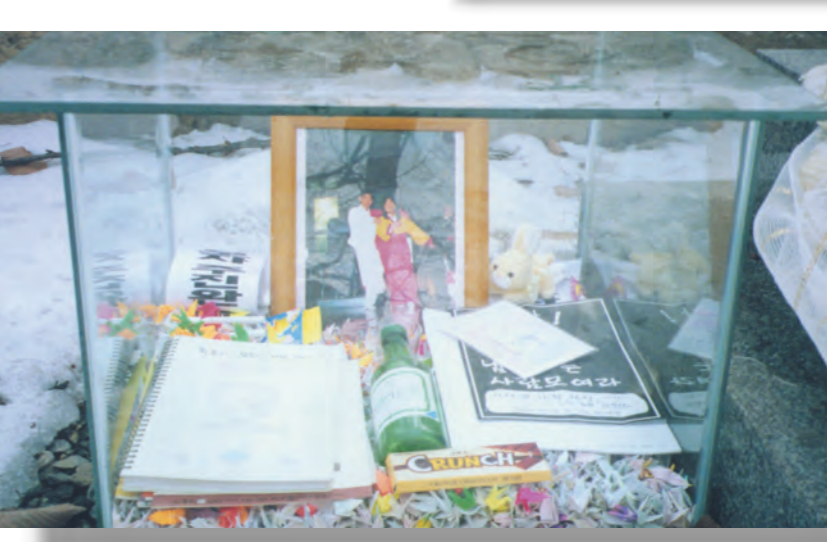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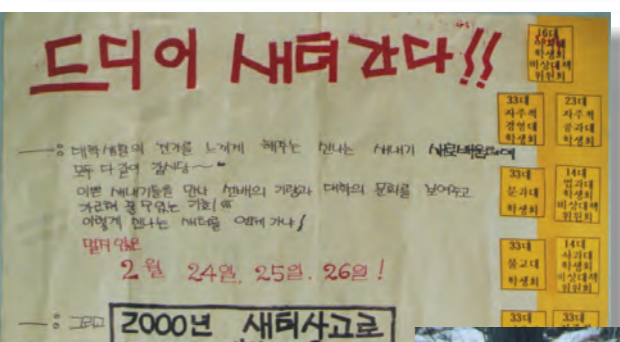
▲ 아주 좁은 옷장 안에 짧은 남녀 각각 한 사람씩을 가둔다. 좁은 옷장 속에서 두 사람은 팬티를 서로 바꿔 입어야 한다. 그것도 다른 팀보다 빨리 바꿔 입어야 한다. ▲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다리에서 이상한 게임이 벌어진다. 교각의 철근마다 한 사람씩 달라붙어 녹을 제거하는 시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학문화, 처음 경험하다

본교 새터는 지난 95년 처음으로 학교와 학생회, 신입생 관련 행사가 분리되면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의 형태로 학교의 기관이나 시설 이용방법을 알려주는 학교행사와 달리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새터'는 중앙행사와 단위별 행사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분리된 새터는 새내기들이 대학 입학후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문화의 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초·중·고 12년간 접한 수동적 문화와는 다른, 스스로 주체가 되는 문화가 기다리는 것이다. 새터는 이러한 수동적 문화수용과 주체적 문화수용의 차이에서 느낄 수 있는 혼동과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없지 않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아산 도고온천에서 2박3일간 치러질 올해 새터 역시 중앙행사를 통해 각 동아리 공연을 진행하고, 단위별 행사를 통해 공동체놀이 등을 행하는 내용과 형식이 98, 99년 이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해마다 변하는 새내기들의 특성이나 관심사에 부합하지 못하는 새터를 양산, 새내기들의 대학 적응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새터의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하지만 타대학들의 경우 세대에 걸맞는 새터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는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새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선정부터 프로그램 진행까지 단과대별로 치루고 있다. '토목공학부'의 경우 지난해 조별로 나온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목적지까지 오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신입생들의 폐기와 도전정신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단조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내기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대학문화에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로 새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대학 신입생 신고식이 학과의 특성에 맞는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우리네 신고식은 과연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본교의 경우, 올 새터는 더욱 의미있고 소중하다. 지난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세상을 떠났던 7명의 학생과 아직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상자들을 남긴 새터사고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새터라는 이름으로 흥취거리는 모습이 아닌, 새내기들이 대학문화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그 안에서 함께 의미를 찾아 나가는 자리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터 프로그램의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새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재학생부터 새터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새터 프로그램은 현내기?!

그러나 본교의 새터 프로그램들은 매년 변화하는 새내기들의 문화수용 방법이나 능력과 균형을 이루기에 부족한 감

아직 할 일은 많다

새터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을 위한

문화부
fresh@dongguk.edu

인터뷰 - 총학생회 선전국장 정승이(국교4)



정승이
사범대 국교4

2001학년도 새터를 준비하고 있는 총학생회 선전국장 정승이(국교4)양을 만나 대학문화에서 새터가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학문화에서 새터는 어떤 의미인가.
= 최근 대학문화가 대중문화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새터는 이런 추세 속에서 대학에 잘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대학 고유의 문화가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는 자리이다. 운동, 민중가요, 집체극, 선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학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새터가 중요한 이유는.
= 모집단위 광역화가 실시되고 나서부터 학생들의 관계가 개별화되어 가고 있다. 새터는 이렇게 흩어진 학부생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다. 그리고 신입생들에게 대학문화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자리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

간이기도 하다. 선배는 후배를 맞아 성장하고, 후배는 선배를 따라 성장하는 양쪽 모두에게 소중한 자리이다.

- 새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나의 경우 여러 선배들을 만나면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대학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다양한 문화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대학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얻었고,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등 본격적인 대학생활에서 느낀 것보다 많은 것을 새터에서 느꼈다. 새내기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 새터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 각 단과대마다 새터를 성사하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 차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뿌듯했다. 이번 새터는 학생들 자체적으로만 준비하게 되었는데, 학교관계자들과 학생 대표들이 함께 협의하고 토의할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관계를 재정립하는 속에서 새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새터사고 1주기 - 위령비와 추모제

“아직 기억하기에 우리는 함께 있음을”

방학 중에도 학교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도서관은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로, 식당은 배를 채우려는 학생들로 또 다른 장소들은 그 나름대로 사람 냄새나는 북적거림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정적이 들려싸인 채 그 고요함을 벗삼아 조용히 학림관을 향해 선 비석이 있다. 지난해 새터 준비를 위해 새내기들보다 하루 앞서 떠났다가 불의의 새터사고로 우리곁을 먼저 떠난 김정은, 김정태, 김학은, 박현아, 서현경, 이영훈, 황근열. 이 7명의 학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위령비가 바로 그것이다. 위령비 앞에는 이들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화, 소주 7잔, 굴 7개, 초콜릿 등이 놓여있다. 또 한편의 유리상자 안에는 종이화, 편지, 사진, 인형 등이 담겨 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을 잊지 못하는 친구나 유족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유리상자 안의 사진속에서 함께 웃고 있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내일(17일)이던 새터사고가 발생

한지 1년이 된다. 대각전과 학림관 소강당에서는 여전히 고인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올해 역시 많은 이들이 새터준비에 한창이기에 새터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는 더욱 가슴 아프고 뜻깊다. 오전 10시 대각전에서 진행될 추모제와 오후 1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치러질 추모제. 각각 진행 방법이나 형식면에서 서로 다른 추모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간 이들을 생각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16일) 졸업의 기쁨에 들떠 있는 교정 한켠에서 내일 있을 추모제를 준비하며 안타까워할 사람들. 추모시를 준비하고, 추모공연을 준비하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진정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과 함께 마음오르나마 추모제를 준비하며 졸업의 기쁜 마음을 잠시 접고, 위령비에 둘러 하루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메아리

게릴라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00도시 00. 콘서트 장소로 결정. 단 한시간의 홍보로 5천명의 인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콘서트 취소. 출연 가수들은 예가 타는 마음과 함께 자기 인기를 확인하는 자리로, 시민들은 인기가수의 무료공연에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에게 알려진 게릴라 콘서트. 최근 전국 각 도시를 돌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콘서트 준

비와 홍보를 마쳐, 일정 인원이 채워지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하고 내에서 게릴라 콘서트가 진행되려 하고 있다. 아니, 이미 진행된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예정과 달리 턱없이 높아져버린 등록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매년 해가 바뀔 무렵이면 재학생, 학부모들을 긴장감에 휩싸이게 만들

던 대학 등록금. 올해도 대학 당국은 지나치게 등록금을 인상해 이들의 가슴에 사정없이 대못을 박아버린다. 교육부의 인상을 재한 지시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위한 게릴라 콘서트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콘서트 성사를 위해 각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번 학기 등록금이 0%로 올랐습니다.

남기 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등록을 해주십시오.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을 당합니다. 물론 등록금 인상은 여기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다음해에도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때까지 저희 학교측의 노력은 계속됩니다”라고. ▲우리는 지금껏 재미있게 게릴라 콘서트를 시청해 왔다. 콘서트 장소와 콘서트 성사여부에 단지 단순한 흥미위주의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주인공은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참가여부에 따라 콘서트의 성사가 좌우되는 것이다.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화끈하게 진행될 게릴라 콘서트가 한창 준비중인 것이다. 콘서트를 위해 5천개의 의자를 준비하고, 시내와 시장, 백화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가수들은 홍보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콘서트 성사에 가슴 졸이면서 말이다.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